



세계를 선도하는 一流人材 되기를

1학기 동창회 장학금
14억2천여 만원 수여



본회는 지난 2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4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관련기사 3~5면>



제68회 전기 학위수여식

지난달 26일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吳然天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세계 교양시민의 자질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18면>

관악출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정관에 따라 간선제로 실시되는 모교 첫 총장선거가 뜨겁다. ‘상아탑 속의 CEO’로 불리는 총장 선출은 오는 6월 말까지 2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총장추천위가 공모지원자들의 발전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5명으로 압축하고 다시 정책토론 등을 거쳐 3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이 중 1인을 선출한다. 30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는 이사회에서 5명, 교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위원회에서 25명을 각기 선출했다. 30명

사립 명문인 연세대의 경우, 12명의 이사 가운데 아예 동문회에서 2인을 선임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대는 2원적인 의사결정기구를 갖고 있다. 총장과 12명의 펠로우로 구성된 하버드 법인(Harvard Corporation)과 30여 명의 감독이사회(Board of Overseers)가 있다. 30명의 감독이사들은 하버드대의 학위를 갖고 있는 동문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하버드대 총장은 법인에서 뽑지만, 감독이사회에의 지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장 선임에 앞서 중요한 것은 법인이사 6명과 감독이사 3명으로 구성되는 선발위원회(Search Committee)가 총장 후보를 물색한다. 2006년 선발위는 1년 동안 수백 명을 인터뷰해 하

모교-동문 연결 끈 약하다

중 대학 외부 인사는 10명이다.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2명 등 당연직을 포함 학내 인사 7명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제2차관 등 당연직을 포함, 외부 인사 8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대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과 의사 결정권을 갖는 이사회는 정부 측 인사 2명을 빼면 현재 법인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吳然天총장 등 학내 인사의 주도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사회와 서울대 동문들 간에 특별한 제도적 연결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버드 개교 이래 첫 여성 총장이자 非하버드대 출신인 現 파우스트 총장을 추천했다. 2004년 법인으로 된 도쿄대는 교수들이 총장을 직접 선출한다.

세계 일류 대학을 지향하는 모교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문을 비롯한 외부의 후원금을 많이 모아야 한다. 여기에는 모교와 동문 간에 끈끈한 연대 의식이 필수적이다. 모교 총장 선임에 동창회가 가타부타할 것은 없으나, 심정적으로라도 연결 끈이 지금보다는 더 튼튼해야 한다.

(李慶衡 내일신문 칼럼니스트·본보 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제국주의는 역사 속에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공격, 약육강식이란 정글적 약탈성 때문에 나쁜 것으로 규정됐습니다.

帝國主義는 나쁩니다. 그렇지만 帝國 그 자체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국이란 개념 속에 내포된 모든 것까지 싸잡아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었다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도 헌법에 스스로 제국이라고 칭했습니다. 조선도 俄館播遷을 겪은 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제국이란 언어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자기 존엄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순간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에 빛을 전하는 주인공이 탄생하고 시간은 그 시점부터 흘러갑니다.

1·2차 세계전쟁에서 제국주의의 파괴성을 겪은 인류사적 경험 때문에 지금 그 어떤 나라도 제국을 자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다른 나라를 다스려 본 나라치고 제국적 관점을 버린 나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예외주의, 중국의 팽창 욕구, 러시아의 대국 본성, 일본의 과거 회귀 등 특히 아시아 관련국들에서 제국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국은 민족사에서 다른 나라를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제국적 경험이 없죠. 대신 피지배와 식민침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 역사의 이런 평화적 성격은 강중국으로 성장한 국력과 함께 동아시아적 갈등을 능동적으로 풀어갈 소프트 파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상처처럼 남아 있는 소국 의식도 스스로 치유해야 할 시점입니다. 소국 의식을 치유

‘제국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

全榮基

중앙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하는 데 제국적 관점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제국적 관점의 미덕은 부분에 사로잡히지 않고 전체를 보는 데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인이 요즘 동아시아의 위기적 정세를 보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친미파는 친중파와 싸울 수밖에 없고 친중파는 친일파를 척결해야 한다는 이분법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분법이나 진영 논리는 강자에게 줄서는 것을 운명처럼 생각하는 약자의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제국의 관점에 서게 되면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굳게 하고, 중국과는 경제 교류를 깊이 하고, 일본과는 시민 연대를 모색하는 친미·친중·친일이라는 3親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자는 스스로 표준을 만듭니다. 부분에서 보면 모순되는 주장들이 전체에서 보면 조화를 이루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친미와 친중이 싸우고 있는데 정작 미국과 중국은 손잡고 화해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친미·친중·친일이 모순됨 없이 조국의 존엄성과 국익 앞에 복무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국주의는 나쁘지만 제국적 관점까지 외면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관악시단

이별 없는 시대

黃東奎(영문57-61)

모교 명예교수·시인

늑마에 미국 가는 친구

이메일과 전화에 매달려 서울서처럼 살다가

자식 곁에서 죽겠다고 하지만

늦가을 비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인사동에서 만나

따끈한 오뎅 안주로

천천히 한잔할 도리는 없겠구나.

허나 같이 살다 누가 먼저 세상 뜨는 것보다

서로의 추억이 반짝일 때 헤어지는 맛도 있겠다.

잘 가거라.

박테리아들도 들로 갈라질 때 쾌락이 없다면

왜 힘들여 갈라지겠는가?

허허.

동문칼럼

한국교육학회는 1953년 4월 4일 6·25전쟁 중 피난지인 부산에 자리 잡고 있던 서울대 사범대학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발족했다.

창립 당시의 회원은 47명이었으며 초대 회장으로 모교 金基奭(교육67-72)명예교수를 선출했다.

이후 한국교육학회 조직이 확대되고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1998년 3월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했으며, 2014년 현재 총 33개로 교육학이 포함되는 학문 영역에 따른 23개 전공분과 학회와 전국 10개 지역 교육학회로 조직돼 있다. 오늘에 이르러 학회 지배구조는 회장 산하에 10여 명의 부회장과 이사회(상임이사) 및 감사와 10개 상설위원회, 지회, 분과학회 및 사무국으로 조직돼 있다.

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09년부터 연차대회 총회에서는 회장 선출방식을 변경해 선임 부회장을 우편 투표로 선출하고, 2년간의 수습을 거친 후 회장직을 승계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학회 회원은 대학

발히 수행하고 있다. 2007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Korea Network)와 2008년 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APERA: Asia-Pacific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에 가입했다. 또한 세계교육학회(WERA: Worl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에 국제화 교류를 위해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현재 3천여 명에 이르는 동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학 학문 분야 기초 및 응용이론 개발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 및 대학 교육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동문회원들은 교육과 관련된 행정·관계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괄목할 업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교육학회는 2명의 국무총리와 다수의 교육관계 부총리·장관 및 대학의 총·학장 및 기관장을 배출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교육학회에서 동문들이 헌신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역대 회장들 중 대다수



金明洙

(교육68-75)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한국교육학회장

국제 학술 행사 등 활동영역 넓혔으면...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교육학 연구자와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원 및 일반인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교육학회는 매년 학술적으로 수월성을 발휘한 연구자에게 학술상(저술상과 논문상)과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 중 학술상은 제14~15대 학회장인 鄭範謨(교육45-49)교수의 기금 마련으로 1972년부터 ‘운주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교육학회는 국제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가 모교 동문들이고, 오늘의 교육학회 위상을 지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교 출신 동문들에 대해 한국교육학회 회장으로서 특별히 당부할 말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교육학회 회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육학회가 세계적인 교육학회의 위상을 지니기 위해서는 동문들이 국제 학술 행사 및 학술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孔大植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강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侑日,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許承虎, 李先敏, 金昌均, 全榮基, 李相起, 姜孝祥, 鄭星姬, 金光德, 鄭在權, 申然瑤, 姜京希, 鄭然旭, 權石泉, 蔡耕玉, 許文明, 申藝莉, 金伶姬, 洪智英, 金希媛, 李佳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林香默, 邊廷洙, 朴秀埭



본회 林光洙회장은 “각자 선택한 전공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이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보다 큰 도전 향해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자리되길”

총동창회에서 3백14명에 장학금 8억9천여 만원 수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2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4년 1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학부생 2백43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71명 등 총 3백14명에게 8억8천9백96만7천원을 전달했다.

또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모교 재학생 2백24명에게 5억3천2백54만원을 수여함으로써 2014년 1학기 장학금은 총 5백38명에게 14억2천2백50만7천원이 지급됐다.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4~5면 참조>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장학금을 받게 될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시킬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인재”라며 “여러분들의 재능과 잠재력이라면 이제부터 더 많은 정진과 헌신을 통해 충분히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우수한 재능을 갖고 있어도 그 재능을 부단히 연마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성장의 대열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라며 “‘城을 쌓는 자는 亡하고 길을 닦는 자는 興한다’는 말처럼 여러분은 오늘 분명 영예스러운 자리에 서 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재능에 찬사를 받는 자리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오늘 이 자리는 보다 큰 도전을 향해 각오를 새롭게 하고 꿈을 키우는 출정식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인재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정진해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분야에서 반드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달라”고 당부한 뒤 “여러분이 흘리게 될 땀과 헌신은 작게는 모교의 역사가 될 것이고, 크게는 대한민국과 인류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귀한 열매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동창회 장학금 수여의 의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대한 격려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를 담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서울대 구성원은 ‘나’에는 강하지만 ‘우리’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가치관이 분열되고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기에 급급한 현실



본회 孫一棼상임부회장 장학금 전달



모교 李在影학생처장 장학금 전달



金貞植특지장학금 수여



權永吳특지장학금 수여



趙弼濟특지장학금 수여



金鐘燮특지장학금 수여



金讚淑·吳東英특지장학금 수여



金秉順·李志鎬특지장학금 수여



朴熙伯특지장학금 수여



金鍾禕특지장학금 수여



李興鍾기금장학금 수여

에서는 더욱 나눔의 정신이 절실하다”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꿈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오늘 장학금을 마련해 주신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이웃에 나누고 더불어 추구하는 선행을 베풀어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길 바란다”며 “항상 오늘을 기억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참된 동량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학생을 대표해 경영학과 李鍾碩(경영09 입)군은 “선배님들의 소중한 장학금은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학교생활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저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전한 뒤 “그 용기와 함께 정신적, 시간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난 1년간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었고 4학년으로 진학하는 현재도 그 꿈은 선배님들의 소중한 도움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선배님들의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에 대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며 “존경하는 선배님들을 본받아 오늘 받은 사랑을 꼭 잊지 않고 훗날 후배들에게 전해 주고 사회에 환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축가에서 趙玟浩(성악05-09)·權相美(성악10-13)동문이 듀엣으로 ‘내마음의 갈매’를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棼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金貞植·尹勤煥·李海遠·朴熙伯·成百詮·金讚淑·洪性大·禹仁性·姜寅求·金鍾燮·鄭忠始·鄭八道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李禮植·趙弼濟·權永吳·金秉順이사를 비롯해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 南益鉉기획처장, 李在影학생처장, 체육교육과 金善振교수가 참석했다.

또 미대동창회 金春玉수석부회장, 학교법인 양지학원 金鍾禕이사장, 황산서원 李興鍾원장,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朴國洋원장, 대림산업 吳圭錫사장, 吳應鉉·秋景玉특지장학회 秋景玉여사, 鄭八道·李慈倬특지장학회 李慈倬여사,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池鍾立이사, 朴浩田·金英姬특지장학회 朴熙用사장 부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香)

2014년 1학기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연순)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洪性大	洪性大(수학57-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具娟才(전기정보공학1)	3,500,000
		孫沅希(의류2)	3,500,000
		承孝珍(화학생물공학3)	3,500,000
		李成仁(언어4)	3,500,000
		朱陽晝(건설환경공학1)	3,500,000
		崔先我(생명과학1)	3,500,000
엠코 金柱津	金柱津(법학54입) 엠코테크놀로지 회장	金泰亨(원자핵공학2)	1,718,500
		南秀玟(노문1)	1,518,000
		南然植(인문계1)	1,518,000
		宋瑄宇(의류2)	501,000
		尹多賢(지리교육1)	1,518,000
李吉女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	鄭惠珍(간호1)	2,687,600
吳東英 ·金讚淑	吳東英(조선항공54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金讚淑(치의학56-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姜正鎭(치의학碩)	4,000,000
		羅炫晝(치의학碩)	4,000,000
		徐다원(치의학碩)	4,000,000
		李有善(치의학碩)	4,000,000
鄭八道 ·李慈倬	鄭八道(AIP 171) 코리아렌드컴파니 회장 부인 李慈倬여사	姜羅垠(인문계1)	2,636,000
		具潤晝(화학생물공학3)	3,029,000
		金泰沆(소비자아동2)	2,467,000
		朴俊英(화학생물공학2)	3,029,000
		申周容(인문계1)	1,500,000
		柳珍雅(특어교육1)	2,636,000
		柳玟尙(경영4)	2,467,000
		李俊珩(통계2)	3,005,000
		林佳鉉(수의예1)	3,272,000
		崔雲午(재료공학1)	3,198,000
		洪知佑(전기정보공학2)	2,467,000
黃海根 ·李金玉	黃海根(토목공학54-60) 동일기술공사 회장 부인 故 李金玉여사	宋洙赫(정치외교3)	2,467,000
李鍾基	李鍾基(경영69-73) 상영무역 회장	姜性旼(의학3)	3,000,000
		南瑄模(의학4)	3,000,000
鄭哲圭	鄭哲圭(화학공학48-52) 신앙문화재단 이사장	金原爽(전기컴퓨터공학博)	2,500,000
		吳相允(재료공학碩)	2,500,000
		洪敏義(전기컴퓨터공학碩)	2,500,000
化學科	화학과동창회	孫濟升(화학4)	3,005,000
金秉順 ·李志鎬	金秉順(AMP 471) 한국구아노 이사 장남 李志鎬(의학77-83) 모교 의대 정형외과 교수	梁榮敏(법학碩)	1,000,000
		吳和錫(법학碩)	1,000,000
		尹義喆(의예3)	1,000,000
		李芝雨(의예3)	1,000,000
鄭大永 ·閔婉基	故 鄭大永(경제51-55) 前한주통상 고문 부인 閔婉基여사	河泰宇(심리4)	2,706,000
金鍾祺	金鍾祺(생물교육51-55) 학교법인 양지학원 이사장	강성욱(식품동물생명1)	500,000
		鄭玄植(화학생물공학1)	500,000
		崔하민(조선해양공학1)	500,000
孫致武	故 孫致武(대학원70졸) 前모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金大燁(지구환경과학碩博)	2,500,000
林光	林光洙(기계공학48-52) 임광도건 명예회장	權大善(재료공학3)	1,500,000
		金煥眞(간호2)	1,000,000
		金容滋(작곡4)	2,000,000
		盧沄周(경제3)	1,500,000
		朴東英(식품영양2)	1,000,000
		裴之賢(식품영양4)	2,500,000
		梁娥蘭(에너지자원공학1)	2,000,000
		李賢娥(화학1)	2,500,000
		崔東赫(기계항공공학4)	2,500,000
		崔兌煥(건축3)	2,000,000
安聖哲 ·孫潤淑	安聖哲(행정58-63) 유니온테크 회장 부인 孫潤淑여사	金承恩(국악4)	3,956,000
鄭忠始	鄭忠始(화학공학72-76) 세진에이엠 회장	金旼眞(치의학碩)	3,000,000
郭永駢	郭永駢(토목공학56-60) 도화종합기술공사 회장	金成中(인문계2)	2,467,000
		金聖仲(물리천문1)	3,174,000
		申昇燁(사회4)	2,467,000
		李泳炫(물리천문2)	3,005,000
		李昌燮(전기정보공학1)	3,198,000
		丁彰炫(생명과학1)	3,174,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李海遠	李海遠(행정51-55) 한국우드위드 대표	李保輪(인류4)	2,000,000
		李始恩(영문3)	2,000,000
牧村 5父子	故 金道昶(법학43-47) 前법제처장·변호사 3남1녀	洪楠英(법학碩)	3,500,000
李元珪	李元珪(농생물58-63)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과장	유동현(역사교육3)	1,000,000
張學淳	張學淳(토목공학46-50) 삼양ENR 회장	姜尙律(건설환경공학碩)	2,000,000
		金勇佑(건설환경공학碩)	2,000,000
		白承縣(건설환경공학碩)	2,000,000
李相範 ·高姪錫	李相範(행정53-57) 변호사 부인 高姪錫여사	李世羅(디자인1)	2,500,000
保大院	보건대학동창회	李秀智(보건학碩)	2,500,000
		羅鍾煜(기계항공공학4)	3,029,000
		박진영(기계항공공학3)	3,029,000
崔相弘	崔相弘(기계공학54-58) 한일MEC 회장		
金貞姬	金貞姬(의학57-61) 시인	鄭允珠(서문4)	2,467,000
禹仁性	禹仁性(기계공학58-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	朴仁善(의학碩)	5,356,000
陽泉	故 金潤澤(경대원68-70) 양천장학회 이사장	姜宣榮(식품영양2)	1,000,000
姜信浩	姜信浩(의학46-52)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부 호앙 즈영(국제碩)	3,140,000
吳應鉉 ·秋景玉	故 吳應鉉(섬유공학67-71) 前반월나염시범단지 대표 부인 秋景玉여사	金得浩(물리교육4)	3,005,000
崔喜藏	崔喜藏(섬유공학58-64) 대성사 대표	朴柱炫(성악碩)	2,200,000
鄭在鳳	鄭在鳳(사회사업60-64) 한섬 대표	金賢宇(경제2)	2,467,000
		徐旼希(정치외교碩)	3,140,000
그린	농대 그린장학회	安承讚(식품생산과학2)	2,500,000
松山	故 金炯珠(토목공학46-50) 삼안전회 회장	김미영(건설환경공학3)	3,029,000
		金秀珉(국사4)	2,467,000
		金하람(전기정보공학2)	3,029,000
		文智鉉(환경계학博)	3,841,000
		成泳濟(치의학碩)	5,000,000
		孫明均(전기정보공학2)	3,029,000
		申和容(디자인3)	3,690,000
		吳孝鎭(환경재료과학4)	3,005,000
		魏志銀(언론정보博)	6,740,000
		李承垠(동양화1)	3,859,000
		林珉廷(고고미술사碩)	3,140,000
		全辰元(기계항공공학)	3,029,000
		蔡雅莢(식품영양3)	3,005,000
		邊根迎(산업공학碩)	4,036,000
		鄭다은(국사4)	2,474,000
		정민호(행정博)	3,309,000
		趙 賢(사회1)	2,636,000
金相廈	金相廈(정치45-49) 삼양사 회장	崔요섭(조선해양공학4)	3,029,000
		崔鍾祐(조소4)	3,700,000
		강전진(식품생산과학4)	3,005,000
		康鳳秀(인류4)	2,467,000
		김성환(물리천문1)	3,174,000
		金周玄(기계항공공학4)	3,029,000
		羅泰熙(바이오시스템4)	3,005,000
		文勝鉉(인문계4)	2,467,000
		朴勁晝(기악4)	3,956,000
		백아름(사회복지2)	2,467,000
		우용기(기악1)	3,712,500
		柳佐烈(체육교육4)	1,803,000
		尹光燮(체육교육4)	3,005,000
		尹贊植(식품생명4)	3,005,000
		李城昌(기악3)	3,956,000
		李樹斌(서양사3)	1,903,600
		정영균(물리천문1)	3,174,000
金鐘燮	金鐘燮(사회사업66-70) 스펙오·삼익악기 회장	趙珪皓(성악碩)	3,956,000
		허 답(사회복지4)	2,467,000
		洪玟基(체육교육4)	3,050,000
		金民英(작곡3)	3,956,000
		金聖鎭(교육4)	2,467,000
金殷宗	金殷宗(경제59-63) 뉴프라이드그룹 회장	金永相(국악3)	3,956,000
		丁斗永(언론정보4)	2,467,000
		崔日圭(자유전공4)	2,467,000
일산회	金振儀(축산59-65) 제일실업 고문 일산회 모임	朴永鉉(농생명공학博)	3,000,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李金器	李金器(약학55-59) 일동후디스 회장	李枝胤(약학2)	3,000,000
愼昌宰	愼昌宰(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대표	金度勳(의학碩)	2,500,000
		金珉智(의학碩)	2,500,000
		金詩媛(의학碩)	2,500,000
		俞智善(의학碩)	2,500,000
		尹修彬(의학碩)	2,500,000
		李惠仁(의학2)	2,500,000
申明珪 ·朴冠鎬	故 朴冠鎬(화학교육47-51) 前동국대 명예교수 부인 申明珪(생물교육48-54) 前관악회 이사	姜龍圭(윤리교육4)	2,467,000
		金셋별(간호4)	1,000,000
		리사위터(체육교육碩)	3,841,000
		에바미리왕(글로벌경영영博)	3,140,000
		陸智惠(화학1)	3,174,000
		李文玟(수학교육3)	2,475,000
		李承善(교육4)	2,467,000
		鄭邊敦(윤리교육3)	2,467,000
		曹政燁(교육3)	2,467,000
		崔睿眞(경영3)	2,467,000
金正澈 ·金正湜	故 金正澈(건축52-56) 前정림건축 명예회장 金正湜(건축54-58)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이사장	孔碩賢(건축5)	2,121,000
瑞岩	崔斗衡(행정51-55) 성원개발 회장	姜旼成(법학碩)	3,358,000
美大	미대동창회	金秀旻(디자인2)	1,555,000
		金儒眞(디자인4)	345,000
		李하늘(동양화3)	1,900,000
壽岩	權永吳(약학55-59) 덕흥상사 회장	김병진(의학碩)	4,734,000
		尹혜정(의학博)	4,734,000
		林廷珉(국악4)	3,956,000
오공 본드	金昌植(전기공학53-57) 오공 회장	金勳(환경재료과학碩)	2,000,000
		劉永敏(환경재료과학碩)	3,000,000
		李鍾圭(환경재료과학碩)	2,000,000
		李太炯(환경재료과학碩)	3,000,000
元日	鄭啓濤(상학61-66) 원일전선판매 회장	김도연(원자핵공학2)	3,029,000
		김성균(산업공학1)	3,029,000
		김학준(사회碩)	3,140,000
		김형민(경영3)	2,467,000
		백인균(경영碩)	3,309,000
		손현욱(경영2)	2,467,000
		양영석(경영3)	2,467,000
		윤준연(전기정보공학碩)	3,867,000
		이용욱(경영4)	2,467,000
		정진욱(경영碩)	3,140,000
金貞植	金貞植(전자공학48-56) 대덕전자 회장	金基汎(전기정보공학碩博)	3,867,000
		金榮漢(전기정보공학3)	3,029,000
		朴慶允(전기정보공학碩博)	3,867,000
		禹俊熙(전기정보공학4)	3,029,000
		李東勳(전기정보공학博)	3,867,000
		田在熏(전기정보공학碩博)	3,867,000
		韓承旼(전기정보공학碩博)	3,867,000
		洪仁智(전기정보공학4)	3,029,000
徐廷和	徐廷和(법학51-55) 새누리당 삼미고문	蘇秉旭(행정碩)	3,140,000
池源哲	池源哲(축산73-77) 이지바이오시스템 회장	李基俊(식물동물생명碩)	4,000,000
趙弼濟	趙弼濟(조선항공46-50) 세양주택 회장	金勝奂(농경제사회4)	741,000
		朴成敍(인문계1)	2,636,000
		梁娜瑛(생명과학2)	3,005,000
		陳韶潤(수의예1)	2,944,800
曹基浩 ·李英子	曹基浩(화학교육54-58) 기호물산 회장 부인 李英子(생물교육56-60) 여사	김한나(생물교육2)	2,500,000
		柳芝源(물리교육2)	2,500,000
		李在容(화학교육2)	2,500,000
		崔根鎬(화학교육3)	2,500,000
		河壽垂(생물교육3)	2,500,000
柳重熙	柳重熙(기계공학53-57) 남성산업 회장	吳光錫(기계항공공학博)	3,867,000
具平會	故 具平會(정치47-51) E1 명예회장	金度龍(기계항공공학碩)	3,029,000
		金壽正(인류3)	2,000,000
		元雅榮(기악4)	3,956,000
		曹 旼(환경계학碩)	4,010,000
李禎相	李禎相(상학59-65) 보생 회장	송서윤(경영3)	2,467,000
		李薰埈(경영1)	2,636,000
李禮植	李禮植(약학46-49) 前극동제약 명예회장	李恩榮(약학4)	4,527,000
李埈鎔	李埈鎔(경제56-60) 대림산업 명예회장	郭南輪(식품영양4)	3,005,000
		金秀彥(응용생물4)	3,005,000

학비 걱정 없이 공부 전념하게 해주신 동창회에 감사합니다

“동창회 장학금, 올해 최고 선물”

부 호앙 즈영
(Vu Hoang Duong·베트남)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베트남 고향집에 있을 때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음력설을 지내기 위해 고향에 왔는데 저뿐 아니라 가족들도 좋은 소식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돼 총동창회 장학금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태어나 중국 저장공상대 장학생으로 선발돼 경제학을 전공한 후 지난 3월 국제대학원 국제통상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중국 유학시절 그곳에 있는 한국 학생들의 근면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한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 국가이기도 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의 대기업이나 세계은행, 베트남의 다국적 기업 등에서 마케팅, 무역전문가로서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박사과정 포기할 뻔했는데…”

에바 마리 왕
(Eva Marie Ranay Wang·필리핀)
사범대학 박사과정



총동창회 지원을 받아 박사과정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타 기관에서 받던 장학금이 끊겨 박사과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서울대총동창회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사범대학에서 글로벌 국제교육협력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박사과정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분야라면 영국, 미국이 낫다고 했지만 한국만큼 역동적으로 국제화 폐가는 나라도 없다고 생각했고 마침 서울대에 연구과정이 있어 지난해 입학했습니다.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 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연구분야가 ‘고등교육의 공적개발원조(ODA)’이기도 합니다. 필리핀 유학생회 대표를 맡아 활동중이며, 유학생들이 모두 ‘친한파’가 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 되고 싶어”

河 泰 宇
(지체장애 1급)
사회대 심리학과 4년



총동창회 장학금 덕분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욱 힘을 내 1학기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육병(지체장애 1급)을 앓고 있어 잠자는 시간 외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도 힘든 제가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건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운도 좋았습니다. 대학생활 중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씩씩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만난 좋은 분들 덕분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졸업 후에도 대학원에 진학해 임상심리를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심리상담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李垞銘		金忍哲(건설환경공학3)	3,029,000
		金慧允(건설환경공학4)	3,029,000
		朴胤京(국문2)	2,636,000
		禹昌熙(바이오시스템1)	3,174,000
		尹누리(지구과학교육4)	3,005,000
		朱二永(의학1)	5,089,000
		崔俊榮(기계항공공학2)	3,198,000
李亨道	李亨道(화학공학61-67) 삼성전기 고문	김청산(기계항공공학1)	3,198,000
金文鉉	金文鉉(상학58-64) 대일씨앤아이 회장	李知垣(생명과학2)	2,000,000
李秀範	李秀範(행정56-60) 백림조세연구원 원장	노영빈(디자인4)	3,000,000
李淳錫	李淳錫(약학61-65) 프라임텍인터네쇼날 회장	吳敏娥(소비자아동4)	2,467,000
成百詮	成百詮(토목공학52-56) 한국해위기술공사 대표	李桐圭(건설환경공학3)	3,000,000
朴熙伯	朴熙伯(의학51-57) 박희백정형외과의원 원장	李智暖(의학4)	5,089,000
金鍾瑞	金鍾瑞(경제58-63) 세보 M.E.C 회장	崔玟禎(생물교육碩)	3,140,000
河權益	故 河權益(의학57-63) 前중앙대 의무부총장	南宮惠輪(의학2)	5,089,000
張重桓	張重桓(의학69-76) 장중환산부인과의원 원장	金載佑(의학4)	3,500,000
		魏榮珍(의학2)	3,500,000
朴浩田 ·金英姬	朴浩田(경영62-66) 삼덕 회장 부인 金英姬(작곡62-66)여사	姜準揮(동양화3)	3,690,000
		孔燦雄(물리천문3)	3,005,000
		具滋潤(기계항공공학4)	3,029,000
		金度勳(정치외교3)	2,467,000
		金應辰(정치외교4)	2,467,000
		金惠眞(농산업교육碩)	3,841,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朴浩田 ·金英姬		박계영(에너지자원공학4)	1,010,000
		박제욱(경영3)	2,467,000
		趙源俊(건설환경공학3)	3,029,000
孫京植	孫京植(법학57-61) CJ그룹 회장	宋致憲(기계항공공학2)	3,029,000
張炳德	張炳德(화학교육53-57) 단일시스템 회장	金彩潾(화학교육4)	3,005,000
		최윤화(화학교육4)	3,005,000
金炳贊	金炳贊(의학53-60) 제주한라대학 이사장	문찬규(식품동물생명3)	2,467,000
金東吉	金東吉(화학교육57-61) 경인양행 회장	徐敏錫(화학교육4)	3,005,000
劉鐘海	劉鐘海(법학50-54) 연세대 명예교수	元嶠鉉(법학碩)	3,000,000
斗山	차容晟(경제59-65)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차容炫(의학62-68) 연강재단 이사장 차容晩(경영73-78) 두산그룹 회장	高旼晔(경영4)	2,467,000
		김찬영(경영2)	2,467,000
		金鉉根(의학碩)	5,000,000
		朴珍秀(경영4)	2,467,000
		柳다애(의학3)	5,000,000
洪禮杓	洪禮杓(치의학65-71) 흥예표치과의원 원장	河相雲(치의학碩)	3,000,000
金洛榮	金日煥(천문기상64-72) 대화 대표	金智元(국악1)	3,000,000
		張敏姬(지구환경과학碩博)	3,000,000
		정민혜(중문1)	3,000,000
嚴秉潤	嚴秉潤(외교60-64) 유리코퍼레이션 회장	유인성(화학2)	3,005,000
藥大	약대동창회	金珉京(약학4)	1,000,000
		朴贊仁(제약6)	1,000,000
		崔雅億(제약6)	1,000,000
		洪性憲(약학4)	1,000,000
		黃世然(제약5)	1,000,000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朴成勳	朴成勳(기계공학58-63) 모간 사장	趙映尙(동양사2)	2,467,000
劉常夫	劉常夫(토목공학60-64) 포스코 고문	車유진(경제4)	2,467,000
李世榮	李世榮(약학57-61) 삼익제약 회장	朴盛鎭(약학1)	2,100,000
尹世榮	尹世榮(행정56-61) SBS 미디어그룹 명예회장	金智燮(융합과학碩)	4,228,000
		金亨來(산림과학4)	3,005,000
		류성실(조소2)	3,690,000
		박진희(조소3)	3,690,000
		徐藝智(작곡4)	3,956,000
		李智賢(법학碩)	6,716,000
		이태연(역사교육4)	2,467,000
		李玄哲(의학3)	5,089,000
		鄭瑞英(의류3)	3,005,000
河富烈	河富烈(경영74-78) 아섬 사장	崔有鎭(철학3)	2,467,000
		黃敍漢(수의예2)	3,103,000
姜信赫	姜信赫(종교66-73) 대우테크 대표이사	朴民洙(소비자아동2)	1,500,000
金秉秀	金夏永(의학70-76)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金廷埈(전기정보공학3)	1,700,000
李興鍾	李興鍾(역사교육54-58) 황산서원 원장	朴光然(역사교육3)	500,000

싱가포르	李南雨(국제경제82-86) 싱가포르지부동창회장	김도현(재료공학3)	1,000,000
------	------------------------------	------------	-----------

※ 2014년 2월말 현재 특지 및 기금장학회는 총 1백35개이며, 이번 학기에는 85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함.

본회 일반장학생 명단

(팔호안 전공·학년)

▲인문대 金奎成(인문계2) ▲사회대 차여리(인류학 석사과정)·吳世珉(심리3)·李赫俊(심리4)·임주경(심리4)·崔亨圭(지리2) ▲자연대 李庚勳(생명과학2)·조영수(화학4) ▲간호대 崔유리(간호2) ▲경영대 金正潤(경영3)·李秀憲(경영2)·李鍾碩(경영4) ▲공대 康盛宇(재료공학4)·金性瓚(원자핵공학4)·柳陳錫(재료공학3)·朴廷桓(건설환경공학4)·李尙彥(전기정보공학4)·李相輝(건축1)·李榮主(건축3)·李定娥(조선해양공학3)·李孝根(전기정보공학3)·崔兌秀(원자

핵공학4)·韓句譚(전기컴퓨터공학 석사과정) ▲농생대 김재환(식품생산과학2)·蘇仁燮(바이오시스템소재4)·辛慧善(농경제사회2)·安佑烈(응용생물화학3)·俞善弼(식품동물생명공학4)·千民校(식품생산과학 석사과정) ▲미대 盧亨志(디자인4)·李奎錫(동양화3)·崔瑞玟(디자인3) ▲법대 文俊赫(법학 석사과정)·李鍊庸(법학4) ▲사대 金 玟(체육교육4)·金志濤(체육교육2)·김태훈(체육교육4)·金賢佑(체육교육3)·宋震鏞(체육교육2)·申智恩(지리교육2)·劉俊浩(불어교육4)·李曠遠(체육교육2)·張昭英(독어교육4)·鄭丞埈(체육교육3)·鄭鍾赫(체육교육3)·洪鎭宇(체육교육3)·黃南喜(지구과학교육4) ▲수의대 金旻玟(수의학1)·柳보경(수의학

3) ▲약대 洪아름(약학2) ▲음대 金明慧(작곡4)·安二鎬(국악 박사과정) ▲의대 金信厚(의학4) ▲치대 賻嘉培(치의학 석사과정) ▲자유전공 蔡媛在(자유전공4) ▲행정대학원 金斗鉉(행정학 석사과정) ▲환경대학원 金貞烈(조경학 박사과정)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장학금

2백24명에 5억3천2백54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梁光姬)= 15명:1천70만원 ▲농생대동창회(회장 李賢秀)= 64명:1억2천8백만원 ▲법대동창회(회장 辛永茂)= 20명:6천8백19만원 ▲사대동창회(회장 卞柱仙)= 5명:1천4백49만5천원

▲상대동창회(회장 成耆鶴)= 80명:2억1천7백36만원 ▲생활대동창회(회장 崔明珍)= 5명:1천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文漢)= 2명:7백79만5천원 ▲약대동창회(회장 李慶秀)= 5명:5백만원 ▲음대동창회(회장 申秀貞)= 5명:5백만원 ▲의대동창회(회장 朴容昞)= 6명:3천만원 ▲치대·치대원동창회(회장 朴健培)= 4명:1천2백만원 ▲대학원동창회(회장 崔鍾車)= 1명:3백만원 ▲보대원동창회(회장 裴吉漢)= 2명:4백만원 ▲한대원동창회(회장 李完永)= 5명:5백만원 ▲ACAD동창회(회장 李弼雨)= 1명:3백만원 ▲SGS동창회(회장 文國現)= 3명:6백만원 ▲AIC동창회(회장 李世漢)= 1명:3백만원



사람은 감정의 극단에 이를 때 눈물을 흘린다. 기뻐서 웃지만 기쁨이 극도로 넘치면 눈물을 흘린다. 슬픔을 참다가도 감정이 극한에 이르면 역시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는다. 감동에도, 고통에도, 분노나 좌절에도, 그 감정이 벽차오르면 눈물을 흘린다. 인간의 반응이란 게 참 복잡하긴 하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린다. 고통, 슬픔, 상실, 비애, 분노, 좌절, 고뇌뿐 아니라 사랑, 즐거움, 감동, 희망, 친절 때문에도 눈물을 흘린다. 바탕에 깔려 있는 감정이 무엇이든, 눈물은 기분을 더 나아지게 한다. 눈물은 사람의 감정을 가장 진실되게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울고 난 뒤의 기분에 대해 88.8%가 울기 전보다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을 했다는 경우는 8.4%에 그쳤다. 눈물이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고 긍정적 감정을 더 잘 표현하게 하는 것을 보면 눈물은 분명 사람에게 유익한 수단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체로 눈물 흘리기를 두려워하거나 저항감을 갖고 있다. 특히 남자들은 어릴 적부터 ‘남자는 울어서 안 된다’는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사실 눈물이야말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그동안 나온 과학적 진실을 살펴보자.

심신의 독을 제거하는 눈물의 효과

△몸 안의 독성 물질을 배출시킨다 :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눈물은 몸 안의 해로운 물질을 씻어내는 방법의 하나로, 신체적으로 더 좋은 상태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 우리 몸에서 독성물질을 배출하며, 심리적으로 억압된 기분을 해소시켜 준다. 그 결과 고통스런 상황에 좀 더 잘 대처하게 해 준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 눈물은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고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세인트 폴 램지 의료센터의 생화학자인 윌리엄 프레이 박사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눈물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물질을 씻어낸다. 시원하게 울고 나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이유다.

△마음을 타놓고 경계심을 풀게 한다 : 눈물은 우리 내부에 쌓아 놓았던 감정적인 벽과 정신적 장애물을 무너뜨려 남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수단이기도 하다. 눈물은 사람들을 동등한 감정의 영역으로 불러들여 보다 쉽게 동화될 수 있게 한다. 눈물을 흘릴 때 다소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일은 아니다. 울음은 힘이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눈물이 나올 때는 당당히 눈물을 흘리고, 남의 눈물에 대해서도 마땅히 격려하도록 하자.

— 건강박사 유태종의 9988 건강습관(리스컴刊)에서 —

장학재단 재산 증가 수의대동창회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李文漢) 산하 수의대장학재단(이사장李角模)은 지난 2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오크룸에서 2014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李角模이사장, 李佑宰·鄭英彩·金善中·金振求·柳判童이사, 李承旭감사, 姜景濤사무국장이 참석해 姜華淳(수의학80-84)동문을 신임 감사로 선임했으며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비롯해 장학기금 출연금 사

유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지난해 金澤洙(수의학55-59)동문이 출연한 3천만원 은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고 69동기회와 86동기회가 기부한 5백만원과 1천만원은 경상비로 두기로 했다. 이로써 장학재단 기본재산은 6억8천만원으로 증가했다.

李角模이사장은 “장학금을 출연하는 동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모교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참여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사를 표시했다.

한편 동창회는 재학생 2명에게 1학기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전달했다.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權彝赫·李基俊·玄澤煥동문 선정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2월 28일 서울 도화동 SNU장학빌딩 지하 1층 메이차이에서 관악대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林光洙회장, 孫一根운영위원장, 尹勤煥·劉鐘海·李海遠·李世中·郭永駟·孔大植·鄭世煜·李炯均·辛鉉雄·胡文赫·金

仁圭·朴鍾根·李在影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孫一根운영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제16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참여 부문에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權彝赫(의학41-47) 명예총재, 협력 부문에 모교 李基俊(화학공학57-61)前총장, 영광 부문에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玄澤煥(화학83-87) 중견석좌교수를 선정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13명의 동문이 대상 후보에 올라, 2시간여의 엄정한 심사 끝에 세 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3월 21일 오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학금 풍성 ... 후배들 힘내라

장학금 등 5천만원 전달 의대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昞)는 지난 2월 14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가전홀에서 후배사랑 장학금 및 해외연수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재학생 6명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으며, 해외연수 예정인 趙容範(의학90-96)·金官昶(의학94-00)·權炯敏(의학92-98)·李宗源(의학92-98)동문에게 5천달러씩 총 2만달러를 지원했다.

한편 2월 16일 열린 진선바둑대회에서 金炳晔(의학50-56)동문이 함춘기성 타이틀을 획득했다.

80명에 1억9천7백만원 상대동창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2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1학기 장학금 및 모교 학술연구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교 조봉제(경제4년)군 등 경제학부 40명과 홍희정(경영4년)양 등 경영학과 40명에게 장학금 1억9천7백36만원을 전달했으며, 학술연구비로 모교 경영대 및 경제학부에 각각 1천만원을 지급했다. 또 경제학부 곽은지 양과 경영학과 정재원 군에게 최우수 졸업상을 시상했다.

64명에 1억2천8백만원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李賢秀)는 지난 2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명과학대학 203동 101호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 장학재단인 상록문화재단을 비롯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일성특지장학회(출연자 鄭潤煥)를 통해 신혜선(식물생산과학부 3년)양 등 학부생 39명, 정현우(산림과학부)군 등 대학원생 19명, 김홍재(수원농생명과학고)군 등 고등학생 6명에게 장학금 1억2천8백만원을 전달했다.



의대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 앞줄 좌로부터 金鍾和·朴容昞·姜大熙·朴商弘·金演洙동문



농생대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 앞줄 좌로부터 全祿厚·李舜衡·李鶴來·李賢秀·鄭潤煥·林龍澤동문, 심상구 씨, 柳寬熙동문

16명에 1천7백만원 대전·충남지부동창회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2월 12일 대전시내 한정식당 만두레에서 2014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동창회 임원과 동문 및 학부모를 비롯해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대전·충

남 출신의 모교 신입생 및 중학교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吳應準회장은 이날 송재원(유성여고)양, 이동주(남대전고)군, 이보영(청양고)양, 정명훈(우송고)군, 최세정(충남고)군, 하태영(보문고)군 및 대전중과 용운중의 성적우수자 10명 등 총 16명에게 1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창회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을 학비로 전달했으며, 매년 수혜자를 확대해 왔다.

최우수 졸업생 28명 격려 공대동창회

공과대학동창회(회장 尹友錫)는 지난 2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2014년 최우수 졸업생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된 민승기(전기정보공학부)·강형창(건설환경공학부)·김범수(조선해양공학과)·이학용(재료공학부)·허대명(기계항공공학부)·김나연(산업공학과)학생 등 28명의 졸업생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으며, 졸업생 대표로 이상욱(기계항공공학부)학생이 답사를 발표했다. (南)





朴順德·程鍊鎭·金亘林·林光洙·李萬載·洪玉善동문

李慶秀회장 선출·공로패 수여

약대동창회

약학대학동창회(회장 千文字)는 지난 2월 21일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코스맥스 李慶秀(약학66-70)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감사에 趙祐列(약학65졸)·金亘林(약학62-66)·沈正淑(약학69졸)동문을 선임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공로패 수여식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이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洪玉善(약학55-59)·李萬載(약학56-60)·金亘林·程鍊鎭(약학69-73)·朴順德(제약87-91)동문에게 동창회장상을 표창했다. 이어 千文字회장이 尹洪重(약학55-59)·金載煥(약학68-72)·朴贊一(약학74-

78)·崔學培(약학76-80)·鄭伊淑(약학82-86)·柳允美(약학87-91)동문 등에게 동창회장상을 수여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많은 약대 동문들께서 국내외 연구기관과 제약회사 등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약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데 대해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별히 총동창회에 처음으로 유증을 해주신 尹洪重동문을 비롯해 동창회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약대 동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모교 약대 李奉振학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건립 중인 신약개발센터가 3월 말 준공 예정인데 동문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완수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였다”며 “새로운 공간을 발판 삼아 연구실적 면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姜大鍵동문 ‘치과인상’ 수상

치대·치대원동창회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朴健培)는 지난 2월 19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에서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3회 자랑스러운 치과인 동문상’에 강대건치과 姜大鍵(치의학53-57)원장을 선정해 상패와 순금 열쇠를 전달했다. 이어 전임 金秉燦회장과 崔光哲·南東錫감사, 李 沃부회장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朴健培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도 졸업생을 위한 ‘Dental Community Orientation’ 행사, 소식지 발간, 자선골프대회, 의료봉사 등을 통해 동창회가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큰 상징으로서의 존재감뿐 아니라 소통·화합·나눔을 실질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서울대인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교 치대원 李在一원장은 축사를 통해 “관악캠퍼스 첨단교육연구복합단지가 올해 11월 완공 예정이며 2014년부터 학사-전문석

사 통합과정을 통해 입학정원의 절반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로 충원한다”는 소식 등을 전했다. 또한 통일치의학협력센터와 치의학교육혁신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멘토 동문 초청 치대여자동창회

치대여자동창회(회장 崔明鎭)는 지난 1월 20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파트너스라운지에서 崔明鎭회장, 본회 金讚淑부회장, 서울여자치과 의사회 許允姬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학생 후배들의 멘토를 맡아 진로와 인생상담을 해주고 있는 동문들을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南〉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96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 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2월 1~28일 11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85명(본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호·425호 6면, 426호 8면, 427호 7면, 428호 8면, 429호 4면, 430호 6면, 431호 3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96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羅東鎬(행정49-55)동문 : 법대 학보사 기자증(1950년), 학생증, 법대 82동창회 회원 명부

▲李炳漢(중문52-56)동문 : 학부생 시절 노트(新體 說文大字典) ▲尹汝昌(농생물53-57)동문 : 전시학생증, 열람증, 수험표, 배지, 졸업기념 및 신입생 환영 사진, 체육대회 사진, 뉴스레터류, 농과대학 풍물패 ‘두레’ 40년사 책자 등 ▲李興鍾(역사교육54-58)동문 : 저서 5권, 서예 입선 작품 11점, 신문 잡지 기고목록 38매, 수료증 및 자격증 38매, 대학신문철 65매, 신문철 68매, 기부금 영수증 3매 등 ▲金起德(상학61-65)동문 : 1960년대 초 대학 강의 노트 및 강의 교재류

등 ▲金明吉(토목공학62-65)동문 : 원형 Slide Rule, Slide Rule, 학교 배지(사진) ▲金南斗(철학66-70)동문 : 철학과 관련 각종 기록물 문서 책자 자료 ▲安在燦(철학79-85)동문 : ‘지양’ 창간호·2호 ▲故 박흥규 철학과 명예교수 : 강의 녹음 테이프 및 CD자료 등 ▲교지 ‘관악’ 편집위원회 : 수습지원·편집활동·서울지역 교지 편집위원회 연합활동 관련 문서, 백기완 친필 원고 등 ▲柳漢夏 前총무과 직원 : 1960년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진행 직원용 명패류, 개교 20주년 기념 넥타이핀 등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임광수)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 임성용 과장 핸드폰 : 010-2319-392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광수·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신임 회장에 李瑞熙회장 선출

남가주지부동창회

남가주지부동창회(회장 金相燦)는 지난 2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워크 더블트리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李瑞熙(행정70-74·사진)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지역협의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차기 회장인 수석 부회장에는 朴惠玉(간호69-73) 동문을 선임했다.

LA다운타운에서 잡화수입업체인 ‘프린스’를 운영 중인 李瑞熙는 14기 LA평통 회장과 SAT한국어 진흥재단 이사를 비롯해 남가주지부 법대동창회장, 경남고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다양한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이날 총회에는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캘리포니아즈 밴드의 공연과 단과대학 대항 장기자랑 등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새 회장추천위원 11명 선임

부산지부동창회

부산지부동창회(회장 安永求)는 지난 2월 10일 부산시 남천동 송원 일식에서 신년하례회 및 임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禹遠亨(의학45-56)고문, 宋圭政(사학63-67)명예회장, 安永求(공업교육65-69)회장과 부회장단, 자문위원, 산하단체 회장 등 20여 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회장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선출 준비 과정을 일임기로 했다.

이날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 위원은 河基成(경제58-62)·宋圭政 명예회장, 安永求회장, 權達述(조소62-66)·金文圭(체육교육

66-70)·黃漢植(무역66-71)·鄭翼株(전기공학68-72)부회장, 李龍二(무역63-69)감사, 吳巨敦(철학67-71)·權鍾大(치의학72-78)자문위원, 영신대 夫繼旭(법학70-74)총장 등 11명이다.

具滋文회장 뽑아

포항지부동창회

포항지부동창회(회장 黃基錫)는 지난 2월 11일 포항시 대잠동 파티스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한동대 具滋文(건축73-80)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신입생 환영회에는 포항 출신의 모교 신입생 12명이 함께 참석해 선배들의 환영과 격려를 받았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金炳宗 作



연당설화, 혼합 재료, 46×28cm, 2013년

<작가약력>

▲1981년 모교 회화과 졸업
▲서울, 파리, 시카고, 브뤼셀, 바젤, 도

쿄, 베를린 등 국내외 개인전 20여 회
▲피악, 바젤, 시카고 등의 국제 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인디아 트리엔날레 등 참여
▲미술기자상, 선미술상, 한국미술작가

상, 기독문화대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등 수상
▲모교 미술대학 학장, 조형연구소장, 미술관장 역임
▲現모교 동양학과 교수

裴鍾贊회장 추대

국제대학원동창회

국제대학원동창회(회장 禹昌彬)는 지난 1월 28일 서울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거든키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리서치앤리서치 裴鍾贊(대학원99-01)본부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裴회장은 “회원 대부분이 40대 이하로 젊고 외국인들도 많아 참여 동기만 분명하게 제시한다면 역동적인 동창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정관 개정을 비롯해 명부 제작, 홈페이지 개설 등 동창회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참여 유도

ACAD동창회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弼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동창회는 지난해 연말 오픈한 동창회 홈페이지(www.snuacada.com)의 활성화와 온라인 동창회지 제작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앞줄 좌로부터 李星觀회장, 洪性穆명예교수, 元正洙·池 淳·李明浩동문, 金文漢·李光魯명예교수, 元鍾煥·全相伯·李永熙·金泰俊·崔寬泳동문

李星觀회장 선임·장학금 전달

건축학과동창회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李珪載)는 지난 2월 10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李珪載 회장을 비롯해 2백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한울건축 李星觀(건축68-72)대표를 선출했으며, 수석 부회장에 한미글로벌 金鍾勳(건축69-73)회장, 상임부회장에 나우설비 羅正瑞(공업교육71-75)대표, 단과대 鄭 鑾(건축72-76)교수, 가천대 裴是花(건축72-76)교수, 감사에 李賢雨(공업교육71-75)·金巨煥(건축72-77)동문, 총무이사에 白 鎭(건축88-92)동문을 선임했다.

임원 개선 후 올해 사업계획 발표와 예산안 보고가 있었으며, 모교 명예교수 장학기금, 동문장학금 등으로 후배 재학생 11명에게 총 1천5백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金賢善회장 연임

역우회

역도부 출신 동문 모임인 역우회(회장 金賢善)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더부페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현 회장인 외환은행 金賢善(불문78-82)부장을 재선출했으며, 신임 총무에 SK건설 周錫珍(화학공학83-91)부장을 선임했다.

정기총회서 친목 다져

안양지부동창회

안양지부동창회(회장 金昌範)는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어반부띠크호텔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昌範회장은 인사말에서 “총동창회 산하 국내 지부 중 27번째로 조금 뒤늦게 발족했지만 활동만큼은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자부한다”며 “홀수달 넷째주 화요일 모임에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등 총회 후 李海政(약학46-49)고문,

韓楠熙(항공공학75-79)수석부회장, 任承宰(의학75-81)·柳龍茂(약학76-80)·張永蘭(국악75-80)부회장, 金壽燮(공법85-89)감사, 金雲基(응용미술78-82)사무국장 등 2기 회장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덕담을 나누는 순서에서 沈在哲(영어교육77-85)국회의원은 “현수막에 적힌 ‘개학 1895년·개교 1946년’ 문구를 통해 모교 역사가 꽤 오래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오랜 전통에 걸맞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동문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1백24명의 명단이 담긴 회원명부를 배포했다.

동문 주소록 발간

제주지부동창회

제주지부동창회(회장 梁佳炫)는 지난 2월 15일 제주대 글로벌 하우스에서 2014년도 총회 및 동문 주소록 발간을 자축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회계 및 사업 보고가 있었으며, 신년 계획을 논의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특별 회비를 모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이어 동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동문 주소록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발간을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20여 명의 동문을 위해 文大彈(법학57-61)고문이 식사를 제공했다. (秀)

- 바로잡습니다 -

지난 1월호(제430호) 7면 ‘ROTC동문회’ 기사 내용 중 학군단 후보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동문은 朴浩田(경영62-66)동문이기에 바로잡습니다.



金仁圭·文昌克·孫一根·裴仁俊동문, 金鎮國동문 부부, 吳然天·林光洙·李炯均·安秉勳동문

‘서울대 언론인 대상’에 중앙일보 金鎮國대기자

관악언론인회 제12회 정기총회 개최

관악언론인회(회장 裴仁俊)는 지난 2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2회 정기총회 및 제11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BS 鄭多恩(언론정보03-08)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 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관악언론인회 安秉勳·李炯均·文昌克명예회장, 裴仁俊회장, 모교 吳然天총장, 吳濟世·鄭夢準국회의원을 비롯해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올해 언론인 대상 수상자인 중앙일보 金鎮國(정치78-85)대기자를 축하했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 金仁圭심사위원장은 “여성 3명을 포함해 신문·방송·통신사의 언론인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35명의 후보 가운데 30년 언론인 공적, 모교와 총동창회, 관악언론인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 등을 평가해 만장일치로 金鎮國동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金鎮國동문은 이날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金동문은 1984년 중앙일보에 공채 21기로 입사한 이후 정치부·국제부 기자, 정치·국제부문 에디터, 편집국장대리,



裴仁俊회장(左)이 金鎮國동문에게 상패 수여

논설실장, 논설주간 등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중앙일보 대기자로 재직하고 있다.

金동문은 수상소감에서 “서울대 언론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 너무 기뻐다”며 “한편으로 ‘기자 생활 30년에 내가 한 일이 뭔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많이 반성했다”고 말했다. <수상 소감 요지 참조>

裴仁俊회장은 “金鎮國동문을 축하하기에 앞서 金동문의 30년 기자 인생을 지켜준 鄭鉉眞 사모님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고 운을 뗐 뒤 “관악언론인회는 결사도, 당도 아닌 자유로운 언론인들의 의무도, 구속도 없는 모임”이라며 “오늘은 많은 선후배들이 만나 악수하고 담소하고 교감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 “지난해 북한의 張成澤이 처형되는 짧은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악언론인회 회원들이 매체의 성향을 떠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과당과 거짓에 맞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金鎮國동문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자로서 제57대 관훈클럽 총무를 지내며 언론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총동창회 동창회보 논설위원을 맡아 선후배 동문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모교 吳然天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金鎮國대기자를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 金동문을 선택한 관악언론인회를 축하하러 왔다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며 “겸손, 성실한 성품 위에 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의 역량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공식행사 뒤 모교 기악과 ‘S. with 색소폰 콰텟’ 팀이 ‘리베르 팅고’ 등을 연주해 식장

金鎮國동문 수상 소감 <요지>

기자 정신의 위기를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점점 일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진주 같은 기사, 칼럼들이 참 많습니다. 후배 기자들의 글을 볼 때마다 언론의 미래는 밝다고 희망을 가집니다.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저는 그 쓰레기더미 위에 또 하나의 쓸데없는 쓰레기를 더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늘 다짐합니다. 또 역사적임니다만 기자들도 떠돌기에 앞서 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니 진영 논리에 빠집니다. 귀를 열어야 진주 같은 기사, 균형 잡힌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모두 언론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뉴스에 미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보화가 가속화할수록 뉴스의 가치는 커질 것입니다. 뉴스의 전달 수단이 어떻게 변하든 뉴스의 1차 생산이라는 기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라는 책을 내놓은 알랭 드 보통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미래가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 독자는 역사상 최대다.” “현재 문제는 뉴스가 공짜이거나 1년치 정기구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선택은 터무니없다. 인간은 똑똑한 동물이다. 누군가 곧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관악언론인회도 이런 언론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고, 기자 본연의 자세를 가다듬도록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후 기념품으로 본회에서 준비한 수건 세트를 받았다. <南>



金泳周·宋明儀·李承旭·裴吉漢·孫一根·朴恩熙·鄭淳石·權純晚동문

朴恩熙회장 등 새 임원진 구성

AMPFRI동창회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朴恩熙)는 지난 2월 4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엠 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朴恩熙회장이 17대 동창회장으로 재선출됐으며 가보정갈비 金外順(12기)대표, 우원홀딩스 金在元(17기)대표, 창조식품 李峰萬(21기)대표, 우디-한양디자인가구 李載坤(27기)대표, 리나스대성 林南洙(29기)대표, 터미

닉스코리아 金茂永(30기)대표를 수석부회장에 선임했다.

신임 회장단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재색을 겸비하고 자상한 인품의 차회장께서 연임을 하면서 동창회가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를 말하기 쉽게 암프리(AMPFRI)동창회로 호칭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새해 화두로 남북통일이 거론되고 있는데 애국선열들이 마지막 가쁜 숨을 내쉬면서 당부한 통일을 위해 암프리 동문들도 조그마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6대 임원진 구성 SGS동창회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회장 文國現)는 지난 2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환경대학원 GLocal홀에서 文國現회장을 비롯해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대승산업 宋斗榮(22기)대표를 수석부회장에 선임했으며, 6명의 부회장, 장학·재정·운영·대외협력·비전전략·사회복지 등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등을 선임해 제6대 동창회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했다. <邊>

3·4월 행사 캘린더

3월 25일(화) 오후 6시

· 의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문의: 02-740-8183>

3월 25일(화) 오후 6시

· GLP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논현동 빌라르베일리

<문의: 02-6000-6520>

3월 28일(금) 오후 6시

· SGS동창회 정기총회

모교 관악캠퍼스 환경대학원

<문의: 02-880-5669>

4월 12일(토) 정오

· 생활대동창회 정기총회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문의: 02-880-6833>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보대원동창회 裴吉漢회장
(한국갈등조정연구소 대표)



지난해 12월 보건대학원동창회장으로 선출된 裴吉漢(보대원 75~77)동문은 대한결핵연구위원장을 지낸 결핵전문가다. 신임 裴회장은 원장 퇴임 후 심리상담, 갈등조정으로 석사학위를 받아 한국갈등조정연구소를 설립,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창회를 맡게 된 그를 지난 2월 6일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만나 계획을 들어봤다.

— 취임인사에서 당황스럽다고 하셨는데.
“돈이 많지도, 인적 네트워크가 넓지도 않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보건대학원이 다학문체계다 보니 동문 간 결집이 쉽지 않아요. 회원이 3천3백여 명 되는데 모임 참석자는 50~60명밖에 안 돼요. 총무이사를 10여 년간 하면서 동창회 운영이 만

던 연락을 매월 드리려고요.”
— 회원 명부는 잘 돼 있는지.
“올해가 회원 명부를 새롭게 제작하는 해예요. 예전 자료로 1백명 정도 전화를 걸어보니 틀린 번호가 많더군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최대한 많은 회원들의 최신 정보로 업그레이드시켜야죠.”
— 한국갈등조정연구소 소개를.

“동기회·직장모임 활성화 최우선”

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죠.”

— 활성화 방안이 어떤.
“사람들이 어느 모임에 간다고 할 때는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모임에 대한 가치부여가 잘 되면 모교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2년 임기 동안에는 우선 친목도모에 주력해 참여율을 높일 생각입니다. 총회 후 역대 회장과 실무자인 역대 총무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동기회를 우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현재 54기까지 나왔는데 기별 대표를 뽑아 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죠. 또 보건복지부나 제약회사, 병원 등 보대원 출신이 많은 직장이에요. 직장모임만 잘 연계돼도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회비 참여를 늘리기 위해 귀찮더라도 연 1~2회 하

“평생을 결핵전문가로 살아왔지만 제 성향은 문과계열과 가까워요. 2006년 퇴임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자 마음먹고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노인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상담학, 심리학에 흥미를 느끼게 됐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여러 갈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죠. 사회적 고비용을 유발하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지난해 한국갈등조정연구소 설립했고요. 지금은 초창기라 할 동료들을 섭외하는 과정에 있어요.”

경남 김해 출신인 裴회장은 서울시립대 수의학과를 나와 모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질병관리분야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미국립보건원 연구원, 대한결핵연구원 미생물부장과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IFP동창회 金光憲회장
(캠페이너스 대표)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IFP)동창회는 지난해 12월 캠페이너스(Campaigners)金光憲(IFP 5기)대표를 제4대 회장에 선출했다. 지난 2월 7일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캠페이너스에서 金회장을 만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취임 소감을.
“저희 동창회는 기수별로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5~6기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다 보니 직업을 떠나 동문 간에 소통과 화합이 잘됩니다. 정기적인 공부 모임에도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친목을 위한 자리에서는 맘껏 즐길 줄 아는 동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운영 계획은.
“과정 수료 이후에도 배움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매학기 합동강의를 실시하고, 연 4회 심화학습 등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동문 골프대회, 해외문화탐방, 등산대회, 송년회 등 거의 매달 잡혀 있는 정기행사를 더욱 활성화해 재미와 학습기능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동창회 문화

“합동강의·심화학습 등 재교육 실시”

차례였기에, 동문들의 추천을 받아 이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 중책을 맡게 돼 부담이 크지만, 우리 동문들을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 과정 소개를.
“IFP과정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삶과 사상을 인문학 방법론으로 조명하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기업체의 상급관리자 및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개인사업가 등 비교적 젊은 40~50대 리더들의 창조력과 상상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과정이며, 현재 3백명이 조금 넘는 동문들이 있습니다.”

— IFP동창회의 장점은.
“다양한 직업군의 사회적 리더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돈을 쫓기보다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 제대로 된 삶을 살

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네이버 ‘밴드’(서울대학교 IFP동창회)를 개설해 동문 간 소통의 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미 1백여 명이 넘는 동문들이 가입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동문들에게 유익한 정보 공유와 친목교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캠페이너스 소개를.
“20여 명 규모의 작은 회사지만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뭉쳐 신한생명, 주택금융공사, 용인공원 등 국내 유수의 10여 개 광고주와 함께 4대 매체(TV, 신문, 라디오, 잡지) 광고를 만드는, 요즘 흔치 않게 선전하고 있는 독립광고 대행사입니다.”
金회장은 1988년 광고계에 뛰어들어 2002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설립한 26년 차 광고인이다. (邊)

대표이사 김혜정 [82入 독어독문]

당신에게 당신 필요하다

결혼해 듀오

맨 듀오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15개
-8333

점유율 63.2%, 매출 1위
(주요 4개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

성혼커플수 28,762명
(2014년 2월 17일 기준)

*본 그래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사 2012.3.29에 발표된 주 7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달성한 100개 기업 중 그래프로 표명한 28,762명
*성혼커플수는 듀오에 가입한 남녀의 결혼 건수(주요 4개업체간 2014.2.14~2014.2.17)

직 장 인 여 러 분, 연 금 공 부 합 시 다

제1장, 내 연금과 글로벌 분산투자 노후 30년을 위한 연금은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공부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을 살펴보면, 가장 성장하는 국가와 가장

수익높은 자산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국내만 봐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서 부동산 투자에만 의지했던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은퇴 뒤 30년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업도 변하고 국가도 변합니다.** 때로 부침이 있고 때로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주식

시장의 1.7%*인 한국을 넘어 좋은 기업, 좋은 국가를 꾸준히 찾아보아야 합니다. **글로벌 분산투자,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를 내 연금에! 구글, 스타벅스, 프라다, 나이키, 비자카드, 폭스바겐 등 세계대표 기업들을

분석하고, 좋은 기업만을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미래에셋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가 수익률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계 초우량 기업들에 분산투자하는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펀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십시오.

*출처: FTSE All world index 기준일: 2013.8.30

미래에셋 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주식) 수익률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2년 수익률	출처: 제로인 / 세전기준, 기준일: 2013.12.31
21.89% BM 14.72% KOSPI 7.94%	37.48% BM 26.01% KOSPI 0.72%	54.42% BM 46.61% KOSPI 10.17%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주식) 수익률로 일반형 및 퇴직연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설정일: 2011.11.02 ■순자산: 1,600억원(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펀드: 8,138억원) ■BM 지수: MSCI AC World Index ■환매방법: 제45)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제48)영업일에 환매대금지급 (*) 17시 경과 후 환매 신청시 적용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총보수: 1.71% (판매0.96, 운용0.66, 신탁0.06, 사무0.03)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0366호 (2014.01.27 ~ 2014.04.26)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과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無에서 無限으로 창조하다

34년간의 쉼 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無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드는 한국석유공사,
오늘도 희망의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석유가 생산됩니다!

- 세계 95번째 산유국
- '04년 울산 동해-1가스전 개발 성공
- 현재 일평균 1만 1천 배럴의 석유 생산

석유비축사업을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합니다!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약 1억 3천 2백만 배럴의 비축유 확보



에너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성장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한국석유공사의 의지를 담아낸 새로운 비전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화제의 동문

국군수도병원 李明哲원장



지난 2월 3일 국군수도병원에 처음으로 민간 의사 출신 원장이 부임했다. 모교 의대에서 31년간 몸담은 데 이어 모교 발전기금 부이사장, 가천대 길병원장 등을 지낸 李明哲(의학67-73)동문이 그 주인공이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2월 21일 만난李원장은 “3주밖에 안 됐는데 두 달은 지난 것 같다”는 말로 근황을 요약했다. 군 조직의 지휘관을 맡은 만큼 군 교육을 받고 국방부에 운영 계획을 제시하는 일 등으로 분주하면서도 새로운 나날이었다.

60년 가까이 국군수도병원장은 현역 군인의 자리였다. 2009년 국군수도병원이 군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군 안팎에서 공개 채용으로 병원장을 뽑고 재정과 인사 등의 자율권을 맡겼다.李원장은 순수 민간인인 자신이 선택된 것에 대해 “완전히 계급장 없는 사람이 혁신적인 마인드로 자유롭게 변화를 일으켜 보라는 뜻 같다”고 말했다.

8백30여 병상과 1백50명의 전문의를 갖춘 국군수도병원은 작은 규모가 아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현역 장병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군 병원 대신 민간 병원을 찾겠다는 사실은 군 의료를 믿지 못하는 실상을 보여준다.李원장은 민간 병원의 변천사는 물론 1978년부터 3년간 군의관으로

있었던 국군수도병원의 옛 모습도 잘 알고 있다. 그런 그이기에 양쪽 병원의 발전이 한눈에 비교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찾는 군 병원’ 목표

“1978년에 국군수도병원이 모교 병원과 거의 같은 선상에 있었습니다. 진료 시스템도 잘 짜여 있었고, 모교 병원에 없는 장비가 여기에 있었죠. 30여 년 동안 민간 병원이 45도 기울기로 가파르게 발전해 왔다면, 군 병원의 발전은 5도 기울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큰데 민간 병원을 다녀본 사람들이 그 곳을 선호하는 게 당연해요.”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지만 국내 5대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강하다. 교육과 연구를 강화한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 호텔같은 병원을 지향하는 추세에 맞춰 ‘군 부대 같은 병원’의 이미지를 벗고 친화적인 ‘환자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군인과 민간인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1백50병상 규모의 중증외상센터도 현재 준비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개선’해야죠. 간호사와 장비를 확충하고, 민간대학병원과 협력해서 공동 연구 체계를 갖추고 우수 인력을 초빙 하려고 합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도 탈피해

순수 민간 출신 첫 군 최고 병원 수장

“과감한 혁신으로 군 의료계 신뢰 회복”

야 하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李원장은 장기적으로 군 병원을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 임상의학연구센터 설립이나 민간인의 접근성을 높여 수익성을 올리는 등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있다.

그는 특히 민간 병원 1년 예산의 절반 수준을 14개 국군병원 및 각 전방의 의무대가 나눠 쓰고 있는 실정을 전하며 국방 예산에서 의료 항목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생명을 다루는 군 의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투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월터리드 육군 병원이나 중국,

대만의 군 병원처럼 대통령도 아프면 찾는 그 나라 최고의 병원이 돼야 합니다. 군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대외적인 소통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의료계 마당발’로 소문 자자

발 넓기로 유명한李원장의 휴대폰 주소록에는 2천8백여 개의 번호가 저장돼 있다. 더불어 늘 가지고 다니는 두툼한 주소록은 3천여 명의 연락처 목록을 스프링 제본해 엮은 것으로, 매년 꼬박꼬박 갱신한다. 이렇듯 굳건한 인적 네트워크는 그에게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을 가능하게 해 주는 든든한 힘이다.

또한 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다. 우리나라 핵의학 분야의 발전에 개척자 역할을 했고, 가천대 길병원장 시절 사우디아라비아에 뇌영상 분야 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렇기에 그의 포부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33년 전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국군수도병원은 그에게 좋은 추억의 장소다. 내과 부장 등의 주요 보직에 열정적으로 임했고 소중한 두 자녀를 얻은 기쁜 시기였다.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온통 웃는 얼굴뿐”이라는 그는 돌아온 이 곳 병원에서 정열을 쏟을 예정이었다.

“모교 재직 이후로 다시 국록을 먹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한 도전을 하러 온 셈입니다. 국군수도병원과 군 의료의 새로운 도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秀)

도쿄 사이카보 吳知宣부사장



‘아버지는 일본에서 한식을, 딸은 한국에서 일본 가정식 요리 전파’

일본 최대 한식 체인점인 ‘사이카보(妻家房)’를 운영하고 있는 (주)영명 吳永錫회장과 한국에서 일식당 ‘도쿄 사이카보’를 운영하고 있는 吳知宣(식품영양99-04)부사장 부녀 이야기다. 吳동문은 흥내만 낸 일식당 일색이던 우리나라에 2009년 8월 일본 현지 주방장 3명을 데리고 ‘도쿄 사이카보(처가방)’를 오픈해 화제를 모았다.

더욱이 모교 출신 미스코리아란 경력과 박지성 축구선수와의 친분 등으로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吳동문은 대학 1학년인 1999년 미스 재일교포 선으로 미스코리아 본선에 진출했다. 金智惠(체육교육97-01)·李하늬(국악02-06)동문의 미스코리아 선배인 셈이다.

지난 2월 19일 서울 청담동 도쿄 사이카보에서 만난 吳知宣동문은 키 170cm, 서글 서글한 난매의 전형적인 미인이었다. 남자 친구 사귄 시간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吳동문은 “예전엔 결혼 늦게 하라던 부모님께서 언제 할 거냐 물어보는 걸 보면 생각을 하긴 해야겠다”며 밝은 목소리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사케 소믈리에’ 자격증도

吳동문은 다섯 살 때 부모님을 따라 도쿄로 갔다. 그곳에서 이사가야 제7소학교와 한인 중·고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졸업 무

렵 아버지가 한식업을 시작하면서 장녀인 그녀가 사업을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선택한 전공이 식품영양학. 일본이 한국보다 음식관련 학문이 더 발달했는데 왜 모교를 택했냐는 질문엔 “다섯 살까지는 한국에서 살았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한국인으로서는 한국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고 기왕이면 최고 학부에서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음식에 대한 이론을 쌓은 후 요리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일본 최고 요리학교로 꼽히는 핫토리영양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2년간 일식·중식·양식은 물론 제과·제빵까지 마스터했다. ‘사케 소믈리에’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어머니의 ‘손맛’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녀는 누구보다 빨리 익혔

다. 吳동문의 어머니는 일본 ‘처가방’의 모든 음식을 개발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뛰어나다.

2년 과정을 마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현장 경험을 쌓았다. 거기에 더해 1년간 뉴욕에 거주하며 50여 유명 레스토랑을 방문해 세계 식당 트렌드를 익혔다. 일본의 TV요리프로그램에 출연도 하고 관련 서적까지 출판하며 요리연구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09년 8월, 아버지와 의기투합해 서울 청담동에 1, 2층 4백95㎡(1백50평) 규모

미스코리아 출신 요리연구가 겸 CEO

“한국에 일본 가정식 요리 문화 전파”

의 일식당 ‘도쿄 사이카보’를 오픈했다. 많은 사람들이 회와 초밥을 일식의 메인으로 생각할 때 ‘일본 가정식 요리’를 콘셉트로 스키야키, 오야코동, 고로케, 디저트 푸딩 등 다양한 일본 요리를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한국 일식당에서 나오는 결반찬(츠키다시)이 정체불명인 경우가 많았고 디저트도 과일 일색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딸에게 메뉴 선정부터 직원 관리까지 전권을 맡겼다. 당시 29세의 나이지만 이론과 기술 그리고 감각까지 갖춘 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吳동문은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직원들의 잦은 이직, 일본 방사능 여

화제의 동문

파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35명의 직원을 관리하며 매년 15~20%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적당한 가격에 제대로 된 일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첫째 하루 매출 5백만원에서 최근에는 1천5백만원까지 끌어올렸다. 한국 주재 일본 회사원이나 외교관 직원들도 많이 찾는다. 2011년 대구점, 2012년 청주점도 오픈했고, ‘도쿄 사이카보’를 벤치마킹하는 업소도 늘었다. 吳동문은 “새로운 메뉴판을 40개 만들면 20개는 금방 사라진다”고 했다.

“하루 매출 2천만원 목표”

올 8월에 개업 5주년을 맞는 吳동문의 단기 목표는 일일 매출 2천만원 달성, 장기 목표는 일식과 한식을 접목시킨 식당을 뉴욕 등 해외에서 창업하는 일이다.

“몇 해 전 뉴욕의 유명 한식당 ‘우래옥’이 문을 닫았죠.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한식으로 승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의 아가자기한 데커레이션 기술에 한식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로 세계 외식 시장에 도전한다면 충분히 통할 거라 믿어요.”

吳동문은 스쿠버다이빙과 골프를 좋아하고 잘하는 요리로 찌개와 생선조림을 꼽았다. 인터뷰 말미에 吳동문은 “4월 13일까지 사이카보에 예약(전화 02-517-0108)하는 동문들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南)

첨단 건설소재의 리더
SILKROAD
실크로드시앤티

<http://www.silkroadcnt.co.kr>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성장한 첨단 건설 소재의 리더,
실크로드시앤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Global SILKROAD C&T

세계 최고의 건축물에 실크로드시앤티의 **ROADCON®**이 사용됩니다.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첨단기술로
대한민국을 넘어 **Global** 혼화제 대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사업분야

혼화제, 급결제, 바닥재, 실리카흙, 플라이애쉬, 분쇄조제 등

(주)실크로드시앤티
<http://www.silkroadcnt.co.kr>

(주)실크로드티앤디
<http://www.silkroadtnd.co.kr>

(주)실크로드하노이
<http://www.silkroadhanoi.vn>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독일 사례 참고해 범 학회 차원의 통일연구 계획”

동문을 찾아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洪準亨 회장



대담 : 姜京希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 논설위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모교 행정학과 洪準亨(법학75-79)교수를 제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학총)는 인문학, 사회·자연과학, 공학, 생명과학 등 모든 학문 분야 학술단체의 권익과 대표성을 위해 지난

1997년 창립했으며 현재 6백84개의 학술단체가 소속돼 있다.

지난 2월 27일 관악캠퍼스 연구실에서 향후 2년간 학총을 이끌어 갈 洪회장을 만나 역점 사업 등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들어봤다.

— 우선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KAOAS)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회들이 각자 단위 학회로서 일을 굉장히 잘하고 역사가 깊은 학회들도 많이 있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제가 단위 학회장을 몇 차례 맡다보니 총연합회 회장도 그런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회원 학회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지식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 회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6백84개의 학술단체가 회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모든 학문 분야의 학회들을 아우르는 상위 기구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도 계속해서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학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가입 요건이 따로 있나요.

“학회 설립 이후 최소 2년 이상 학회지를 발행하고 있어야 하며,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돼요. 또 1백명 이상의 회원이 속해 있어야 하며, 그 중 대학 전임교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대학교수 회원의 소속 대학교가 10개 이상일 경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신청만 하면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자격의 적합성을 심의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학총에 가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 학회에 대한 공인 절차가 없다보니 학총에 가입하는 것이 일종의 공인된 효과를 갖는 것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단위 학회가 너무 난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학총이 일종의 인증기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학회로 성립하려면 어떤 내부적인 기구를 갖춰야 하고, 얼마 이상의 회원 수를 가져야 하는지 등 학총 가입 조건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학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 임기 2년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한 활동, 즉 연구윤리 문화의 확산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는 겁니다. 가령 연구 표절 문제의 경우, 단위 학회 차원에서



연구윤리 주제로 11월 첫 국제학술행사 진행 재미있는 사례 담은 행정법 교양서 출간 목표

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에게 시비를 가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현재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아 학총 차원에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분야별, 학회별 공통적인 목표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국제적 수준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연구윤리를 위한 활동 외 다른 계획은.

“회원 학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서 설정한 목표가 ‘시작도 봉사, 끝도 봉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회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돌아켜 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서비스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윤리는 물론 통일연구의 경우도 학총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죠. 이처럼 연구 주제를 계속 개발해 학회들 간 연계시키며 협력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洪회장은

모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공법학 석사학위와 행정법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괴팅겐대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수료했다. 아주대 교수와 독일 베를린자유대 초빙교수를 거쳐 1995년 모교 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해 활동하고 있다.

또 모교 행정대학원 부원장, 교수협의

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장, 한국환경법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모교 행정연구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환경행정법’,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등 20여 권의 연구 서적을 발간했으며,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6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1997년) 등을 수상했다.

— 회장님께 회원들이 바라는 점도 같은 부분이겠죠.

“그렇죠. 학회들을 서로 연결해 주고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아 구체적으로 대변해 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저 또한 그 역할에 집중해야겠요. 엄밀히 따지면 학총은 단일 학문을 위한 곳이 아닌 만큼 목표 설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서도 언급했던 연구윤리 활동을 위한 주제를 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개인 중심으로 된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회, 정치, 공익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생각입니다. 학생회만 해도 조직을 구성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하면서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 세대적으로 개인주의화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모교나 동문들에게 바라는 것은 각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강한 리더십을 요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최근 사회 현장에서 서울대생에 대한 기대가 잘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생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에 나서서 깃대를 들고 나가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아닌 네트워크 리더십, 또는 보통 얘기하는 협력적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올 한 해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제 전공 분야에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전문 서적을 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0여 권의 책을 발간했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행정법을 전공했는데, 재미있는 사례도 제시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일반 대중들도 알기 쉽게 풀이하고 문제도 제기하는 책을 출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준비는 해 오고 있었지만 올해엔 꼭 실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진= 邊廷朱기자·정리= 林香默기자)

지고 올해 처음으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만 했었는데 국제적으로 확대해 11월에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 학회 차원의 주제인 통일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통일에 관련된 학회 일정은.

“아직 일정을 구체화한 것은 없습니다. 통일 문제는 한 번에 끝낼 문제가 아닌 만큼 다양한 학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 형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중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과거 독일의 경우도 참조하고 전방위적으로 통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모교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는데, 교수로서 또한 선배로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예전의 학창 시절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요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수줍은 느낌을 느낍니다. 제 딸도 서울대 동문인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30130-증-38804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 큰 병원으로 앞서갑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개원
암센터/뇌신경센터 진료 개시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www.snubh.org
1588 3369



원자력은 만약의 경우까지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중 가장 저렴하고 경제적인 원자력 에너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하기에 -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생각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안정성 검증을 통해
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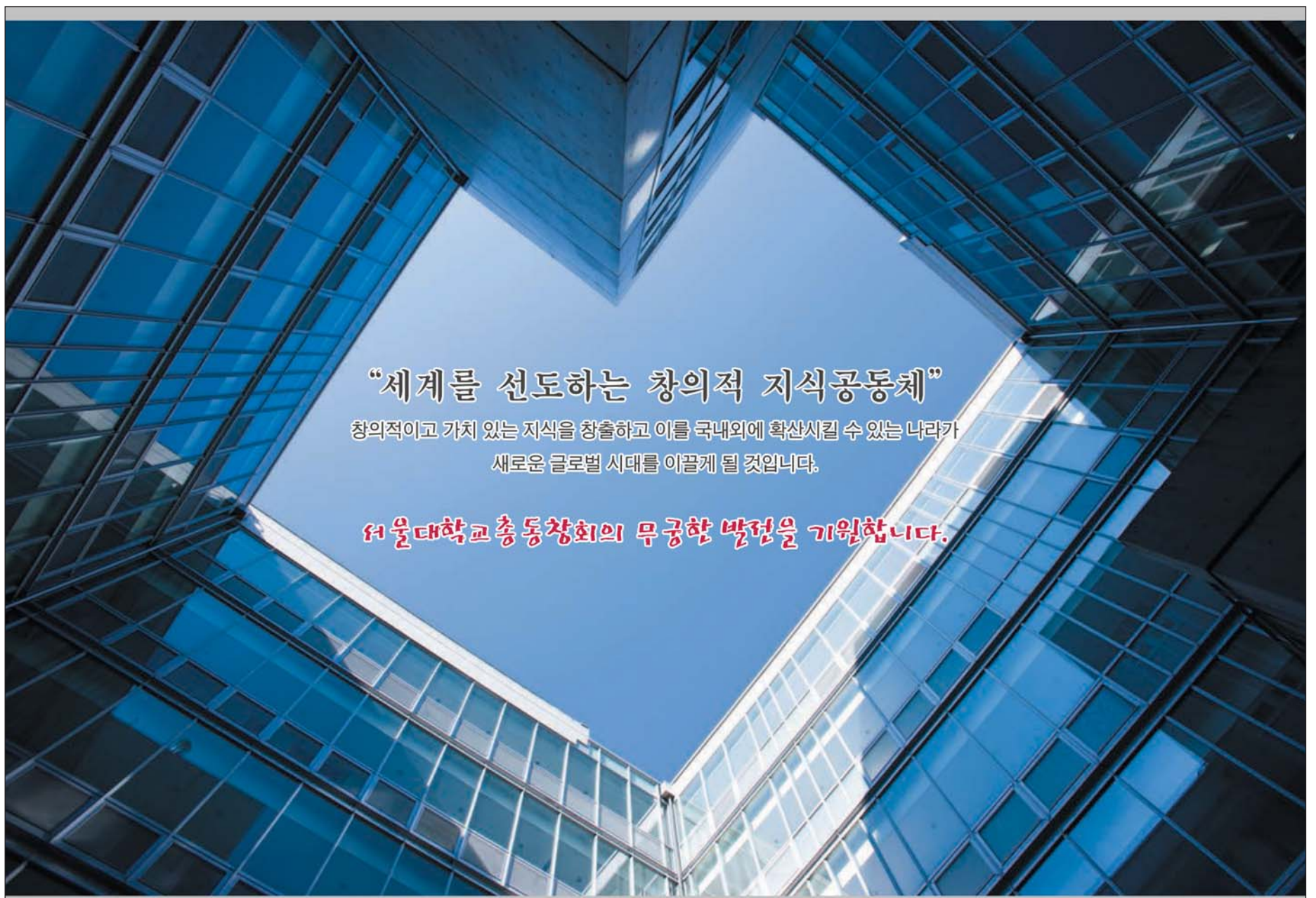




삼양그룹은 식품만이 아닙니다 화학부터 의약까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모든 것에 삼양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첨단화학소재부터 69억 세계인이 꿈꾸는 항암제까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첨단소재를 발견하신다면 확인해보십시오. 아마 삼양그룹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풍요로운 생활의 시작 **samyang**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산시킬 수 있는 나라가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吳然天총장 식사 〈요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 성장해나갈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공동선에 기여하는 국가관과 인간정신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분법적 사고와 극한적 대립을 지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소통의 문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다양성과 유연함을 증시하면서 창조적 사고를 통한 근원적 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고와 융합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셋째, 졸업생 여러분은 세계 교양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국가의 틀 안에서 사고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팀플레이 정신을 살려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완벽한 팀을 결코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완벽한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인들이야말로 팀플레이 정신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아우를 때, 여러분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이제 여러분은 정든 교정을 떠나 학교 밖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사회인으로서의 새 출발에 대한 설렘이 교차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열망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자랑스롭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용해야 한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전력으로 전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대 가족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동문이 됐다는 것은 큰 대의를 위해 헌신·봉사해야 하는 무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차 모교가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총동창회의 일원으로서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를 위시한 동문 사회 역시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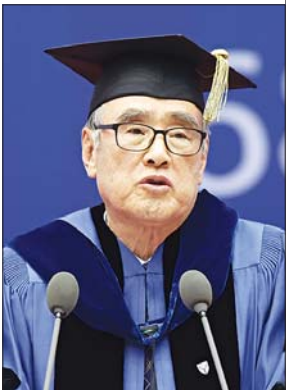
李洪九 前국무총리 축사 〈요지〉

내년이면 우리는 해방 70년, 곧 한반도 분단 70년을 맞게 됩니다.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 걸어온 서울대학교는 내년이면 개교 120주년이 됩니다. 우리 나라가 겪어 온 우여곡절 속에서 학문을 숭상하는 민족의 전통을 지켜 가고자 대학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대 중국을 출범시킨 孫文선생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실천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더 나아가 인재를 기르는 대학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졸업생 여러분도 실천에 앞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적절한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에 강조점을 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한반도의 분단과 대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예로운 학위증을 받는 여러분과 많은 한국의 젊은 후배들에게 조국통일의 역군이 돼 주길 부탁드립니다.



제68회 전기 학위수여식 … 5천1백33명 배출

뭣총장 “상대를 배려하는 소통의 문화 이끌길”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8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郭永馱·孔大植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李賢宰·趙完圭·鮮于仲皓·李基俊·鄭雲燦 전임 총장과 吳然天총장, 鄭根埜평의원회 의장, 李政宰교수 협의회장 등 보직교수가 참석했다. 또 李洪九 前국무총리, 태광사 李龍熙회장,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洪起玄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6백24명, 석사 1천9백17명, 학사 2천5백92명 등 총 5

천1백33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吳然天총장은 식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은 대학”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졸업생들이 희망의 중심부에서 각자의 포부를 실현하고 창조적 가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모교에서 배운 지식을 자본 삼아 용기를 가지고 사회에 도전하라”고 격려하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장 먼저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李洪九(법학53-57)前국무총리가 특별 연사로 초청돼 “오늘 영예로운 학위증을 받는 여러분과 많은 한국의 젊은 후배들에게 조국통일의 역군이 돼 주길 부탁한다”고 축사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이날 모교 학군단(ROTC) 첫 여성 장교후보생인 崔周妍(국어교육10입·ROTC 52기)양이 졸업생 대표로 답사했다. 오는 3월 육군 장교로 임관하는 崔양은 “서울대학교는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부딪혀서 깨닫고 나아가게 해줬다”면서 “그 결과 우리는 학점이나 학위가 아닌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다”는 의연한 말로

큰 박수를 받았다.

모교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잠비아 출신으로 한국에 유학온 지 6개월 만에 모교에 합격해 화제가 됐던 켄트 카마숨바(Kent Kamasumba·농경제사회학부10입)군을 비롯해 2백여 명의 외국인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기악과 崔景煥(작곡72-80)교수가 지휘하는 ‘SNU WIND 앙상블’이 식전 행사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등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연주했으며, 모교 음악대학 남성중창단은 축가로 ‘쿠니쿠니 쿠니쿨라’를 열창했다.

각 단과대학별 총장상과 총동창회장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김지은- 김지원 ▲사회대 : 박소영- 이수경 ▲자연대 : 손희진- 이진아 ▲간호대 : 류수미- 장명석 ▲경영대 : 정재원- 김영완 ▲공대 : 홍무선- 최윤승 ▲농생대 : 신성환- 권용성 ▲미대 : 이준명(총동창회장상) ▲법대 : 석소현- 김진희 ▲사대 : 지성룡- 손용하 ▲생활대 : 안향길- 정다영 ▲수의대 : 김나연- 서태영 ▲음대 : 박예린- 정예련 ▲의대 : 한연비- 차승우 ▲자유전공 : 이정효- 김경하 ▲치대원 : 문준호- 박지원 ▲의대원 : 임지수- 문정윤 ▲법대원 : 장윤실- 윤정은 (秀)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2월 졸업	총 회원
인 문 대 학	179	12,047
사 회 과 학 대 학	300	16,272
자 연 과 학 대 학	210	11,965
간 호 대 학	80	3,722
경 영 대 학	166	7,729
공 과 대 학	595	46,294
농 업 생 명 대 학	234	22,094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72	5,700
법 과 대 학	128	17,190
사 범 대 학	250	27,175
상 과 대 학	—	6,723
생 활 과 학 대 학	69	4,544
수 의 과 대 학	49	2,461
약 학 대 학	5	6,373
음 악 대 학	117	8,122
의 과 대 학	83	11,808
치 과 대 학	1	6,050
자유전공학부	54	80
대 학 원	1,846	100,034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국 제 대 학 원	59	946
보 건 대 학 원	40	3,691
사 법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68	4,996
환 경 대 학 원	49	2,912
치 의 학 대 학 원	90	526
의 학 대 학 원	64	125
융합과학대학원	28	149
경영전문대학원	170	851
법학전문대학원	127	406
소 계	5,133	342,842
준 회 원	—	13,338
(특 별 과 정)	779	26,497
총 계	5,912	382,677

許成道교수 등 24명 퇴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는 吳然天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및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24명의 정년· 명예퇴임식이 열렸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許成道(중문학)교수, 姜正嫻(수리과학)교수, 金明洙(화학)교수, 白明鉉(화학)교수, 李昌馥(지구환경과학)교수, 河良淑(간호)교수, 趙東成(경영학)교수, 安建嫻(건설환경공

학)교수, 全京秀(건설환경공학)교수, 孫憲俊(재료공학)교수, 盧祥夏(바이오시스템·소재학)교수, 卓泰文(바이오시스템·소재학)교수, 權寧傑(디자인)교수, 尹賢珠(성악)교수, 白淸心(기악)교수, 金聖權(의학)교수, 金典(의학)교수, 朴貴媛(의학)교수, 徐廷琪(의학)교수, 成相哲(의학)교수, 車重益(의학)교수, 韓太倫(의학)교수, 鄭用德(행정학)교수, 裴珖植(치의학)교수.

2014학년도 입학식 ... 신입생 총 6천6백62명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성인되길”



모교는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모교 吳然天총장, 許成道명예교수, 보직교수를 비롯해 본회 孫一根상임 부회장, 두성테크 梁杜錫회장, 태광사 李龍熙회장, 학부모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洪起玄교무처장은 학사보고를 통해 “학부생 3천3백79명, 석·박사 3천2백83명 등 2014년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 신입생은 6천6백62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문대학 최홍범(언어14입)군이 신입생을 대표해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모교 학생으로서 금지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吳然天총장은 식사에서 鄭喜成(국문64-68)시인의 시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 중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여러분의 선배들은 연구실

과 산업현장, 국제 무대,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술한 땀과 눈물을 흘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역시 앞으로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의 사명과 책무를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될 것”이라고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정년을 맞은 중어중문학과 許成道(중문68-72)명예교수가 축사했다. 許명예교수는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 중심적 사고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과정 중심적 사고를 하라”면서 후배들에게 삶의 자세를 일러주는 한편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생이 아니며, 대학 시절 최고의 낭만은 책을 보다가 모교 도서관이 문을 닫는 밤 열한시에 고른 배를 움켜잡고 도서관을 나서는 것”이라며 치열한 독서의 자세를 강조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모교 ‘SNU WIND 양상블’이 식전 행사로 ‘오페라의 유령’과 ‘레미제라블’의 친숙한 곡들을 연주했으며, 모교 음악대학 남성중창단은 축가로 ‘오 솔레미오’를 열창해 신입생과 가족들을 축하하고 새 출발의 기운을 북돋웠다.

올해도 다양한 신입생이 눈길을 끈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으로 음대에 최연소(16세)로 합격한 홍유진(기악과)양, 탈북민 출신 이서영(가명·의예과)양, 시각장애 1급 노용후(영어교육과)군, 청각장애 2급 우소라(동양화과)양,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한 이란성 쌍둥이 전해은(윤리교육과)·해진(식물생산과학부)자매, 구세군 서울후생원 출신의 최슬기(기악과)양 등이 당당히 모교에 입학해 화제가 됐다.

한편 본회(회장 林光洙)는 모교 李長茂(기계공학63-67)前총장이 집필한 도서 ‘책을 넘는다’를 신입생 전원에게 선물했다. 〈秀〉

사범대학 학장에 全泰源교수 임명



지난 2월 24일 모교 사범대학 학장에 체육교육과 全泰源(체육교육72-79)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수학장은 1979년 모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리건주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부터 모교 체육교육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 모교 체육연구소 소장, 사범대학 학생부학장 및 체육교육과 학과장을 비롯해 체육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운동과학회 부회장, 아시아운동과학회 회장, 대한스포츠의학회 부회장,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장, 미국 오리건주립대 방문교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방문교수 등을 역임했다.

미술관 관장에 金成嬭교수 임명



지난 2월 7일 미술관 관장에 미술대학 동양화과 金成嬭(회화82-86)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금관장은 1986년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동국대에서 미술사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관동대와 동국대 강사를 거쳐 2001년부터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희전’(덕원 미술관, 1997) 등을 비롯해 7회의 개인전과 ‘젊은 모색전’(국립현대미술관, 1990), ‘한국현대미술전 : 자연의 숨결’(러시아, 2003) 등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을 개최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1991) 및 입선(1992, 1993) 등을 수상했다.

ADB 나카오 총재 특강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원장 金俊基)은 지난 2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 SK홀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다케히코 나카오 총재(사진)의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교수 및 재학생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강연에서 나카오 총재는 ‘Future of Asia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를 주제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의 역할과 미래 등에 대해 소개했다.

나카오 총재는 일본 재무성 재무관, IMF 자문위원 등을 지낸 국제금융과 개발 원조 부문 전문가로 지난해 4월 ADB 총재에 취임했다.

吳然天총장 식사 〈요지〉

우리 서울대학교는 지금껏 세속의 부나 명예를 넘어서 진리와 정의를 추구해 왔습니다. 남들보다 우수한 자질을 부여받고 훌륭한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면, 마땅히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여러분의 많은 선배들이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이제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에 합류했습니다.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른이 됐음을 자각하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성실하게 실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습관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배움에 있어서도 주체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혼자서 끙대지 말고 서울대학교라는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혜택을 듬뿍 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스승과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도와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멀어만 보이던 진리의 빛이 훗날 가까워 올 것입니다.

許成道명예교수 축사 〈요지〉

대학은 과학적·객관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에 입각한 비판 정신을 기르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 대학에 다니면서 여러분은 수많은 문제를 내십시오.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든 문제를 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창의적 사고의 첫 번째 길입니다.



과학적·객관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치열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적, 인종적, 성별적, 계급적, 종교적, 이념적, 지역적 편견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고 과학적·객관적 사고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책을 많이 보십시오. 도서관은 시간이 나고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것이 아닙니다. 10분만 있으면 도서관에 가십시오. 책의 제목만 봐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보면 그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독서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계를 바꾸려면 여러분을 먼저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답고, 멋지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공정한 총장 선출 위해 이사회 ‘행동강령’ 의결

모교는 지난 2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장 선출에 관한 업무수행 시 이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의결했다.

행동강령을 살펴보면 △총장 선출까지 법률·정관·규정 등에 명시된 각종 원칙과 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 △총장 후보자 및 그 관계자의 접촉 요구

시 거절 △금전·물품·향응 및 그 밖의 보좌에 관한 약속 등 이익 제공 거절 △후보 적격 여부 공개 및 지지 불가 △후보자 개인정보 제공·누설 금지 △총장 선출 업무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 자제 등으로 명시됐다.

차기 모교 총장은 올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로 선출된다. 지난 2월 5일 30명의 인사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香〉

발전공로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제7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 또는 단체를 3월 28일까지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교 기획처 대외협력팀(전화 : 880-9712, 팩스 875-9712)으로 후보 추천서, 추천사유, 공적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교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

5백90명에 12억5천만원 전달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吳然天)은 지난 2월 27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4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기부자와 장학생 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기부자와 가

족, 장학생 3백여 명과 모교 任廷基기획부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등 총 3백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부자 대표로 지난해 7월 ‘박숙희 미래비전 장학기금’을 조성한 朴淑姬(지리60-64)동문이 격려사를 했으며, 장

학생 대표로 전민주(물리교육09입)학생이 답사했다.

올해 발전기금은 1천2백여 명의 학생들에게 약 24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학기에는 5백90명에게 12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발전기금은 현재 2백여 개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여 개의 특지장학기금이 추가로 설립돼 장학생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SNU 희망장학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장학금을 통해 학비뿐만 아니라 매월 생활비를 함께 지원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洪羅玲씨, 洪錫竣·洪錫肇·洪羅喜동문, 吳然天총장, 丁相朝학장, 洪錫珪동문

법대 1층에 ‘유민홀’ 재개관

법과대학

법과대학(학장 丁相朝)은 지난 2월 20일 관악캠퍼스 법과대학(15동) 1층에서 유민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법과대학 丁相朝(법학78-82)학장, BGF리테일 洪錫肇(법학71-75)회장, 삼성미술관 리움 洪羅喜(응용미술63-67)관장·洪羅玲

부관장, 보광창업투자 洪錫竣(사회73-77)회장, 보광그룹 洪錫珪(외교75-79)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민홀은 지난 2003년 洪錫珪회장이 모교 법대에 4억원의 발전기금을 후원하면서 洪錫珪회장의 부친인 故 維民 洪維基(경성제대40년졸·前중앙일보 회장)동문을 기리기 위해 법대 건물 1층에 조성된 약 1백70㎡ 넓이의 학생 휴게 공간이다.

이후 洪錫肇회장의 지원을 통해 지난 2013년 말부터 현대적 감각을 갖춘 공간으로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 丁相朝학장이 洪錫肇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참석자들은 새롭게 단장한 유민홀 내부를 다같이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삼영화학 李鍾煥명예회장

모교 명예 공학박사학위 받아

모교는 지난 1월 31일 삼영화학그룹 李鍾煥명예회장에게 명예 공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李鍾煥명예회장은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석유화학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가로서 화학 분야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이바지했으며, 사재로 설립한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통해 미래 인재육성과 대학 발전에 앞장서 왔다.

또 2012년 6월에는 모교 중앙도서관 신축 건립기금으로 6백억원을 출연하는 등 기업가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



邊昌九교육부총장, 李鍾煥명예회장

李명예회장은 대통령표창(1985년), 금탑산업훈장(2003년), 장영실과학문화상(2003년), 백범문화상(2004년), 국민훈장 무궁화장(2009년) 등을 받았으며, 2007년 미국 포브스지의 ‘48명 박애주의자’에 선정됐다.

재학생의 소리

劍道部訓 ‘즐겁게, 사이 좋게, 바르게’

‘운동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강한 위계질서나 엄격한 분위기 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교 검도부는 部訓으로 삼고 있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교 검도부는 1956년 서울시 동송동에 있던 서울대 옛 캠퍼스 문리대에서 吳炳哲(철학56-65)선배님에 의해 창립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열리는 검도대회에 참가해 개인전이나 단체전에서 우승을 포함해서 상위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례행사의 하나로서 연말에 시행하고 있는 일본 동경대학교와의 친선 검도교류전이 2013년으로 10회를 맞이했습니다. 격년제로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서로의 학교를 방문해서 YB친선시험 및 OB선배들과의 교류전은 물론, 부원들 간의 개인교류를 포함해서 서로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한 번씩 졸업한 선배님들께서 모여 ‘OB 수련모임’을 열고 있는데, 재학생들도 참가해서 교감지애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 학기에 한 번씩 흡커밍데이 행사를 통해서 검도부의 원로 선배님들을 비롯한 OB분들과 모든 재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OB 대 YB 시험을 펼치고 다 함께 수련하고 있습니다.

검도부는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도움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지도해 주시는 사범님은 金暻秀(서양화91-



蘇秉昶
(수리과학11입)
검도부 부장

95)선배님입니다. 또 부원들의 승급 및 승단 심사와 관련하여 田光熙(법학67-71)선배님께서 지도편달을 아낌없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지만, 모교 검도부는 사회 각지에 계신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사용하던 도장이 속해 있던 보조체육관이 철거되는 바람에 지금은 큰 체육관 내에 있는 간이 도장에서 수련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철거한 건물 대신 앞으로 들어설 새 건물에 훌륭한 도장을 마련하고자 저희 재학생들이 시설 관련 사항을 꾸준히 문의하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학생 일동은 OB선배님들께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러 선배님들 덕분에 어려움을 딛고 계속 수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검도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제약 趙慶一회장, 10억원 쾌척

하나제약 趙慶一(약학64-68)회장(사진左)이 지난 1월 20일 모교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 건축 기금으로 10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吳然天총장과 趙慶一동문을 비롯해 任廷基기획부총장, 약학대학 李奉振학장, 발전기금 金炯周상임이사, 하나제약 장사정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개최됐다.

이 기금은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 건축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신약개발센터는 약 8천9백25㎡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건립되며, 신약개발 후보물질 연구와 개발 단계의 신약을 동물에 실험하는 전임상실험 등이 모두 이뤄지는 최첨단 복합연구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趙동문은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과 하나제약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 왔으며, 2011년 2월 약학대학동창회에서 수여한 서울대총동창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동제약 崔誠元대표, 5억원 출연

광동제약 崔誠元(경영88-92)대표(사진左)가 지난 2월 25일 모교 약학대학에 발전기금으로 5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吳然天총장과 崔誠元동문을 비롯해 任廷基기획부총장, 약학대학 李奉振학장, 광동제약 金現植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개최됐다.

崔동문이 조성한 ‘서울대-광동제약 약학대학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모교 약대의 교육 및 연구활동과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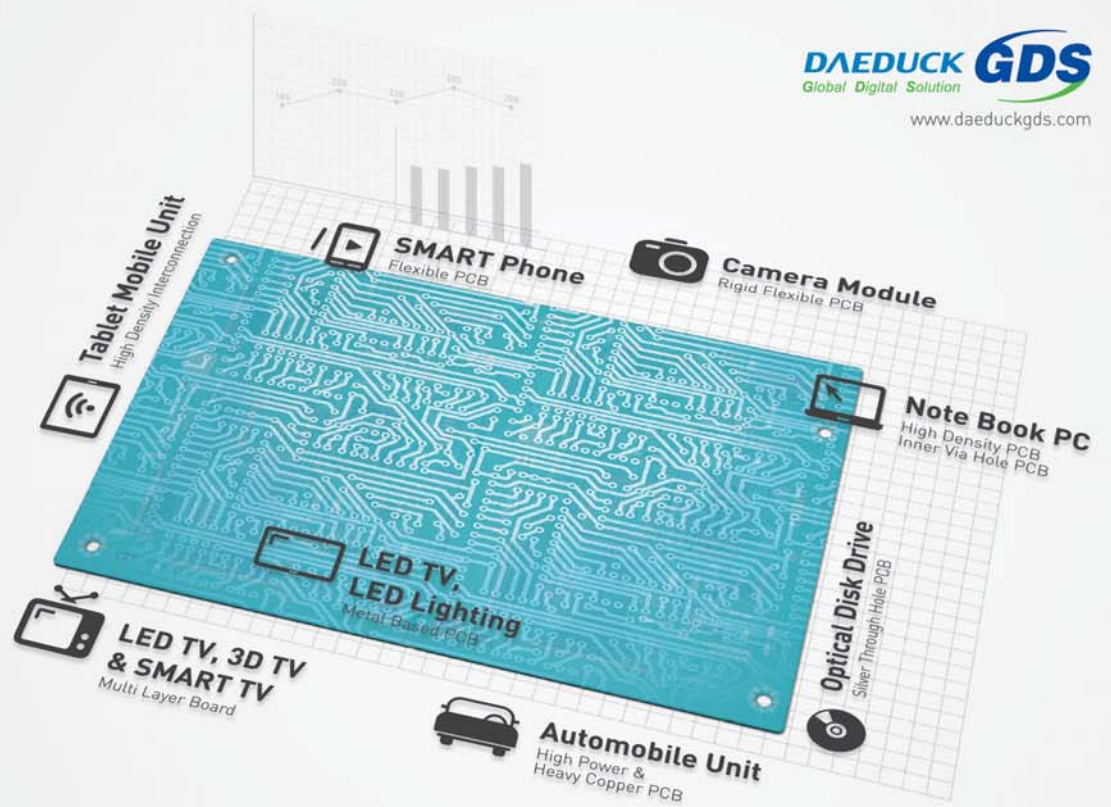
또 일부 기금은 오는 2015년 모교 약대의 전신인 조선약학강습소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崑山 약학역사관(가칭)을 건립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崑山약학역사관은 崔誠元동문의 부친이자 광동제약 설립자인 故 崑山 崔秀夫(AMP 15기)회장의 아호를 따 명명됐다. 반세기 동안 제약산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고인을 기리며 우리나라의 약학 역사를 기념하는 장소로 조성될 예정이다. (秀)



보이지 않는 기술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생활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대덕GDS의 PCB제품은 당신이 노트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휴대폰 영상으로 세계 곳곳의 친구들과 만날 때도
가족들과 TV를 즐길 때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세상,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기술로 대덕GDS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DAEDUCK GDS
Global Digital Solution
www.daeduckgds.com

www.kepco.co.kr



절전으로, 넉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KEPCO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열기 대신 방한복으로, 에어컨 대신 부채로 추위와 더위를 이겨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은 기본이지요.
전기를 절약하면 이산화탄소가 줄게 되고 환경을 위한 비용은 절감되어 결국 세상은 조금씩 더 넉넉해집니다.
건강하고 넉넉한 세상을 위한 전기절약 - KEPCO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KORAELECTRIC POWER CORPORATION

www.ewp.co.kr

한국동서발전주
KORAEASTWESTPOWER CO., LTD.

빛을 나눌수록 세상은 더욱 밝아집니다

너눔은 실천했을 때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이 됩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생명을 키우는 빛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한 기업
한국동서발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밝혀 갑니다.
세상이 행복해지는 빛을 만드는 한국동서발전





응답하라 BLACKBOX !!!

최상의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기업체 특별판매
대리점문의
예약 혜택
T. 1899-3235

R&D
전력표준기 | **POWER STANDARD**
전기에너지관리시스템 | **EPS**
블랙박스 | **BLACKBOX**
T. 02 848 1480

IT Leader, Energy & Mobile
후원 **SeRi Computer Inc.**



서울우유협동조합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나는 물음에
아이들은 아빠보다 키가 클 거라며
엄마처럼 예뻐질 거라며
금세 웃고 즐거워 합니다.

매일매일 자라는 아이들처럼
행복은 우유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서울우유 주문신청 및 고객센터 : 080-021-5656 (수신자부담)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거실의 TV 속에도

엄마의 마그네슘 프라이팬에도

동생들의 태양열 온수기에도

할아버지의 휠체어에도

큰 형의 자전거 속에도

삼촌의 플렉시블 태블릿 속에도

누나의 첫 차 속에도

공부방의 LED 전구에도

posco

누구에게나 포스코가 있다

당신은 매일 생활 곳곳에서 수 많은 포스코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신소재, 그린 에너지 사업을 펼쳐가는 포스코
더 나은 내일로 당신 곁에 다가갑니다

글로벌 철강
세계 최초 자동차용 초고강도강 등 World First, World Best 제품 양산 / 해양플랜트 등 고품질 에너지 강재 시장 선점 / 2013년 WSD(World Steel Dynamics) 세계 철강기업 경쟁력 1위(4년연속)

첨단 신소재
세계 최초 리튬 주출 기술 개발(2차전지 핵심원료로 전기자동차, 휴대전화 등에 쓰임) 및 음극재 생산 / 국내 최초 마그네슘 제련공장 준공 및 고부가가치 소재 (자동차강판 등에 사용되는 망간) 생산 / 제철부산물 활용한 탄소소재사업

그린에너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석탄화력 등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 차세대 에너지-연료전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 / 풍력(탈리해상풍력), 태양광 (미국 네바다주, 신안 태양광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콩트 릴레이

지리산 산행기

朴 聖 勳(정치69-73)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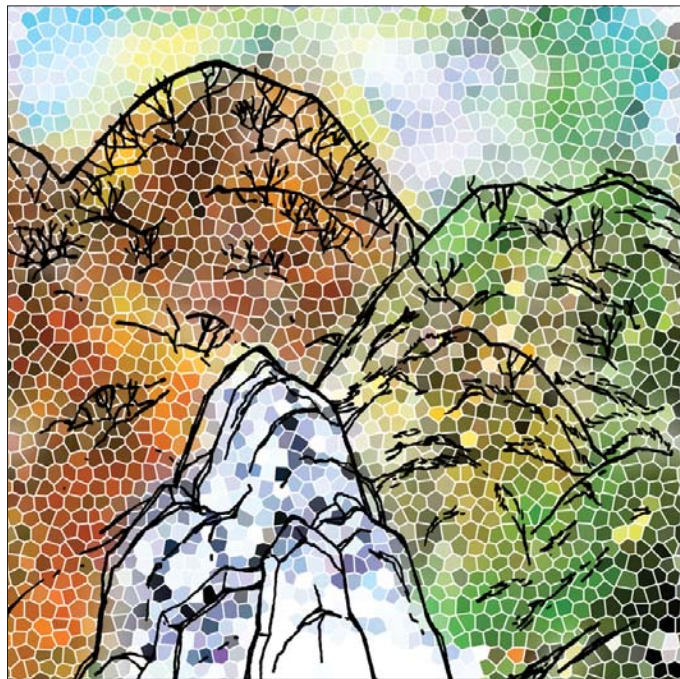
나는 프로 산악인과는 거리가 멀고 그저 가끔 혼자서 또는 지인들과 어울려 가까운 북한산, 도봉산, 청계산, 관악산에 다니는 수준의 아마추어 등산객이다.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고향에 계시는 노모도 보살필 겸 인근에 있는 대학에 강의도 나갈 겸해서 매주 전주 한옥마을에 내려가는데, 어쩌다 주말을 넘겨 길게 머물게 되면 혼자서 당일 치기로 지리산을 가곤 한다.

아침에 생수 한 병, 바나나 두 개, 떡 한 조각을 배낭에 넣고 대문을 나서면 노모께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또 지리산이냐고 물으신다. 노약하신 어머니에게 아들의 산행

피아골은 주로 가을철에 가게 되는데, 계곡의 화려한 단풍에 정신이 팔려 대피소까지 올라갔다가 되짚어 돌아오거나 대피소를 지나 작삼하고 임결령까지 올라가면 역시 노고단 성삼재로 돌아 내려오기도 한다. 묘하게 또 피아골 산행에서는 가끔 뱀을 만난다.

피눈물나는 민족의 비애가 서린 곳이어서 그런지 깊은 계곡의 집채만 한 바위를 타고 넘으며 팔팔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빨갛고 파랗게 연색을 뽐내는 초목들의 농염한 향연을 듣고 보고 마시면 인간 세상이 아닌 듯한 환상의 경지에 빠져든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계곡에 그림처럼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 (디자인09-13)

인월, 운봉, 와운, 달궁...

이곳에서는 시공을 초월해 신선초의 향기로 숨을 쉬는 것 같다.

마치 보름달 정기를 받아 하늘로

오르는 선녀들의 이름 같다고나 할까.

틀림없이 지리산 깊은 계곡 어딘가에

桃花源記의 전설 같은 마을이

꼭 있을 터인데.

은 전혀 달갑지 않다. 환갑을 넘긴 아들이 집을 나설 때면 차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 시며 버스 값을 쥐어주시는 어머니...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면 마음이 찡하다.

전주역에서 여수행 전라선 기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려 한적한 구례구역에 내리면 멀리 지리산의 장엄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특별히 작정한 행선지가 없으니 구례버스터미널에서 형편 되는 대로 성삼재나 화엄사 또는 피아골로 가는 군내버스를 탄다. 버스로 성삼재까지 가면 쉽게 노고단(老姑壇)에 오를 수 있고, 화엄사로 가면 계곡 등산로를 따라 호젓하게 노고단까지 걸어 올라가 성삼재에서 버스로 하산, 다시 구례구역에서 기차를 되짚어 타고 전주로 귀환한다.

노고단에 오르면 꼭 활미게 마음 속 소원을 비는데 황당한 것만 아니면 상당히 잘 들어 주신다. 특히 매년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에는 전주역에서 첫 기차를 타고 구례 구역으로 가서 화엄사 계곡으로 노고단에 올라 일출도 보고 소원도 빈다. 교회 집사인 내 아내에게는 극비사항이다.

산행 길 초입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한참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탐방안내센터 트럭이 옆에 서더니 어디 가냐고 묻는다. 행선지를 얘기했더니 그쪽은 통제구역이라서 등산은 불가하단다. 그럼 벽소령을 가겠다고 했더니 산행 길 입구까지 태워다 준다. 탐방센터 직원은 내려주면서 반달가슴곰들이 출몰하는 지역이니 가끔 소리를 지르면서 산행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의신마을을 거쳐 땀을 뻘뻘 흘리며 벽소령에 올라서니 오후 2시가 조금 넘었다. 이정표를 보니 좌측 능선은 노고단 방향이고 우측 능선은 천왕봉 방향이다. 우측은 초행길인데 어떻게 할까. 기왕이면 아직 못 가본 천왕봉을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다소 무모하지만 해가 중천을 조금 지났으니 잘하면 천왕봉을 만발치서라도 볼 수 있으리라.

능선 길을 마라톤 자세로 뛰기 시작했다. 노고단에서 천왕봉에 이르는 능선 길은 하나뿐이라서 종주하는 산악인들은 피난보따리 같은 커다란 배낭을 짊어지고 카라반처럼 한 줄로 열을 지어 묵묵히 걷는다. 마치 경건한 성지 순례자들의 행렬 같다. 그래, 인생이란 바로 이들 순례자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앞만 보고 말없이 걷고 있는 순례자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했다.

나는 초경량의 배낭을 지고 있어 나는 듯이 이들을 추월했다. 마른재, 덕평봉, 칠선봉을 지나 정신없이 세 석대피소에 당도하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세석은 지리산 능선 중에 중요 지점으로서 네거리에 해당한다. 대피소 규모도 매우 크다. 이미 많은 남녀 등산객들이 차분하게 저녁밥을 짓고 하룻밤을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검이 덜컥 났다. 대피소는 예약제고

야영 장비는 전혀 없고 배는 고프는데 천왕봉까지는 세 시간 반을 더 가야 한다. 日暮途遠, 옛 중국 고사에 나오듯이 해는 지고 갈 길은 멀었다. 설사 천왕봉에 간들 지리산 산신께서 나를 어디에 재워주겠는가. 이제야 내 정신이 돌아왔다.

이정표를 보면서 가장 빠른 하산 길을 강구했다. 거림 폭이 6km 세 시간 거리로 가장 짧다. 두 번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다시 뛰기 시작했다. 산행에서는 대낮 하산 길이라도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마음이 급했다. 공포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몸을 재게 움직여야만 했다. 어두워진 숲과 계곡의 바위와 물을 뛰고 넘으며 하계의 인간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다.

마침 초승달조차 없어 검푸른 하늘에 수백억 개의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문명세계의 밤은 낮의 연장선 위에 있지만 자연세계의 밤과 낮은 극명하게 다르다. 울창한 숲에서는 금방이라도 반달가슴곰이 뛰어나올 것만 같았다. 오히려 사나운 짐승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다.

문득 梁柱東님의 시를 노래한 가곡 ‘산길’ (朴泰俊 작곡)이 떠올랐다.

산길을 간다 말없이 / 호울로 산길을 간다 / 해는 저서 새소리 / 새소리 그치고 / 짐승의 발자취 / 그윽히 들리는 / 산길을 간다 말없이 / 밤에 호울로 산길을 / 호울로 산길을 간다

중학교 3학년 때 음악선생님이 이 가곡을 가르치며 인생길의 고독과 비애가 담긴 가사라고 일러주셨던 기억이 난다. 사춘기 소년들에게는 전혀 흥미 없을 이 노래와 가사가 촌 촌하게 이해될 때쯤이면 이미 중년이 돼 있을 거라고 하셨다. 오늘날 굳이 산길을 홀로 가야만 하는 비장한 사연은 없지만 누구나 나그네 인생길에 어찌 한 번쯤 이런 고난이 없으랴.

공포와 어둠을 헤치고 세 시간 가량 숲길을 내려오자 드디어 인가의 불빛이 서너 개 보인다. 마을에 가까이 이르자 저편에서 긴 수염을 기르고 개량 한복을 걸친 도사풍의 한 중년 남자가 어둠 속을 천천히 걸어왔다. 도화마을은커녕 흑시 유령마을로 잘못 들어왔나 싶어서 공포감에 잠시 마음을 졸였다.

마을에 들어서자 그제야 휴대폰 생각이 떠올랐다.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열어보니 이미 오래전에 건전지가 소진돼 꺼져 있었다. 산에서는 휴대폰 건전지가 빠르게 소모된다. 마침 택시 한 대가 마을에 들어왔다. 구례로 가자고 했더니 구례가 어디냐고 되묻는다. 여기는 경상남도이고 진주택시라서 가기가 어렵단다. 비싼 요금을 내걸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출발했다.

택시는 지리산 기슭을 굽이굽이 돌고 돌아 구례구역에 내려준다. 마지막 아간열차를 타고 전주역에 도착하니 지정이 훌쩍 넘었다. 하루 종일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던 노모는 그래도 아들이 무사 생활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나는 천왕봉을 코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온 것이 못내 아쉬웠다. 예전에 북한 의 묘향산에 갔을 때, 보현사까지만 들어갔다가 일정 때문에 아쉽게 돌아 나왔던 때처럼 마음속에 숙제로 남겨 두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평생 한번은 꼭 가리라고 버티던 천왕봉에 올라 해묵은 숙제 하나를 풀었다. 지나간 한여름 어느 날, 중산리에 도착해 일박하고 새벽 6시에 산행을 시작해 12시 정각에 상봉 표석을 알현했다. 정상 등정을 허락해주신 지리산 신령께 감사하며 國泰民安과 나의 작은 소원을 빌고 일행과 함께 서둘러 하산했다. 백무동으로 내려와 다시 1박하며 전날 저녁에 했던 것처럼 계곡물에 몸을 담가 천연 거품 목욕으로 피로와 열기를 풀었다. 지리산 주변 향토의 지명들은 어쩌면 이렇게 곱고도 그윽할까.

인월, 운봉, 와운, 달궁... 이곳에서는 시공을 초월해 신선초의 향기로 숨을 쉬는 것 같다. 마치 보름달 정기를 받아 하늘로 오르는 선녀들의 이름 같다고나 할까. 틀림없이 지리산 깊은 계곡 어딘가에 桃花源記의 전설 같은 마을이 꼭 있을 터인데. 상그릴라나 유토피아 같은 마을이...

이제 속세에서 이만큼 살았으니 어쩌다 무릉도원을 찾지만 한다면 돌아 나오지 않고 바로 거기서 눌러앉아 살 생각이다.

왜 지리산에 가는가.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동 정

수 상

▲元正朱(건축53-57 인하대 명예 교수)=지난 3월 1일 삼일문화재단으로부터 제55회 3·1문화상 예술상 수상.

▲朴聖作(정치55-59 독일 베를린 자유대 종신교수)=지난 2월 13일 한·독 학술교류와 친선 관계에 기여한 공로로 독일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훈장 수훈.

▲南豐鉉(국문55-60 단국대 명예 교수)=지난 3월 1일 삼일문화재단으로부터 제55회 3·1문화상 학술상(인문·사회과학부문) 수상.

▲鄭城鎭(법학58-63 前법무부장관·국민대 명예 교수)=지난 2월 1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인권부문) 수상.

▲李敬在(사회60-64 방송통신위원장)=지난 2월 11일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 위과정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언론인상 수상.

▲金榮一(법학60-64 前헌법재판관·변호사)=지난 2월 17일 법률

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사법부문) 수상.

▲成樂寅(행정69-73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2월 1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학술부문) 수상.

▲金修奉(물리79-83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지난 3월 1일 삼일문화재단으로부터 제55회 3·1문화상 학술상(자연과학부문) 수상.

▲張完翼(언어81-85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지난 2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2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

▲崔鳳泰(사법81-88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지난 2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2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

▲金東亮(행정84-86 국무조정실장)=지난 2월 20일 미시간대 한국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李尙甲(정치86-91 전지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지난 2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2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

▲鄭義和(HPM 3기 국회의원)=지난 2월 1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입법부문) 수상.

▲丁世均(ALP 5기 국회의원)=지난 2월 1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입법부문) 수상.

인 사

▲李忠熙(물리54-5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지난 1월 16일 고령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인 'Re-SEAT 프로그램 발전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출.

▲李炯均(정치59-64 한국기자협회 고문·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13일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에 선임.

▲權寧彬(사학61-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지난 2월 13일 한국고전번역원 제3대 이사장에 선임.

▲鄭正估(행정61-65 前한국학중앙연구원장)=지난 2월 5일 울산공업학원(울산대, 울산과학대) 제5대 이사장에 선임.

▲李成俊(고고인류64-69 언론중재위원회 자문위원장·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13일 대한언론인회 상담역에 선임.

▲文昌克(정치68-72 前중앙일보 대기자·본보 논설위원)=지난 3월 1일 모교 사회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에 위촉.

▲金潤哲(영어교육68-72 한국에술종합학교 교수·국립예술자료원

장)=최근 임기 3년의 국립극단 예술감독에 임명.

▲金仁圭(정치69-73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13일 대한언론인회 상담역에 선임.

▲權寧傑(응용미술69-76 모교 디자인학부 교수)=지난 2월 17일 종합 홈 인테리어기업(주) 한샘 사장에 선임.

▲夫龜旭(법학70-74 영산대 총장)=지난 2월 5일 임기 1년의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KPU) 제17대 회장에 선출.

▲安炳燦(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문화기획학교 창립총회에서 상임고문에 취임.

▲成箕文(법학71-78 前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4일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

▲朴洪佑(법학72-76 서울행정법원장 겸 서울가정법원장)=지난 2월 14일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

▲張秉佑(법학73-77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지난 2월 14일 광주지방법원장에 임명.

▲房極星(법학74-78 前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장)

=지난 2월 14일 광주고등법원장에 임명.

▲崔在亨(법학75-79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장)=지난 2월 14일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

▲呂相薰(법학75-80 前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양형위원회 위원)=지난 2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임명.

▲朴炳大(법학76-80 前대전지방법원장·대법원 대법관)=지난 2월 24일 법원행정처장에 취임.

▲朴基性(경제77-81 前한국노동연구원장·성신여대 교수)=지난 2월 11일 한국노동경제학회 제25대 회장에 취임.

▲高永會(건축77-81 前대한기술사협회장·성장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지난 2월 21일 대한변리사회 제37대 회장에

선출.

▲姜孜求(법학77-81 前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4일 창원지방법원장에 임명.

▲姜炯周(법학77-81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장에 임명.

▲成樂松(법학77-81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장에 임명.

분쟁 광물 규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올해 5월부터 미국 상장 사 및 미국 상장 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분쟁광물 사용실태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의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쟁광물이란 무장 세력들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콩고 및 그 주변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말합니다.

이들 4가지 광물은 모두 휴대폰, 가전,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미국 정부의 수입 제재 뿐만 아니라 미 시민단체의 불매 대상 리스트에 오를 수 있어, 매출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손상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EIATRACK을 통해 전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http://www.eiatrack.org>

IHS EIA TRACK Environmental Intelligence Analysis



IHS IEEE SAE INTERNATIONAL

Kitis 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전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대응, EIA TRACK 이 해결해 드립니다.

Authorized Dealer in Korea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趙仁鎬(법학77-81 前부산고등 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2월 14일 대전지방법원장에 임명.

▲崔完柱(법학77-81 前서울고등 법원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장)= 지난 2월 14일 서울행정 법원장에 임명.

▲曹海鉉(법학81졸 前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2월 14일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

▲金奎顯(치의학81졸 외교부 제1 차관)= 지난 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 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차관급)에 임명.

▲金潤寶(법학78-82 前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장에 임명.

▲朴炯南(법학78-82 前부산고등 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2월 14일 전주지방법원장에 임명.

▲成百珪(법학78-82 前서울고등 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장)= 지난 2월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 임명.

▲李起宅(법학78-82 前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2월 14일 서울서부

지방법원장에 임명.

▲崔相烈(법학78-82 前부산고등 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2월 14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임명.

▲趙京蘭(법학79-83 前서울고등 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지난 2월 14일 청주지방법원장에 임명.

▲閔茂淑(대학원84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연구실장)= 지난 2월 11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여성가족비서관에 임명.

▲鄭松鶴(ACAD 54기 前서울시 광진구청장·한양대 특임교수)=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감사에 임명.

행 사

▲李秉錫(회화58-62 한국미술협회 고문)= 지난 2월 6~27일 경남 창원시 중앙동 갤러리 필에서 초대전 개최.

▲安輝睿(고고인류61-67 모교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오는 3월 27일부터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10주 과정 제1기 국외문화재 아카데미 강좌 개설.

▲車興奉(사회62-69 세계노년학회 회장)= 지난 2월 10~13일 유엔 제52차 사회개발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潘基文 UN 사무총장과 지구촌 고령화 및 전 세계 노인문제 해결에 관해 협의.

▲朴明潤(보대원74-76 민주평통 교육민족화합포럼 상임대표·관악회 이사)= 지난 3월 8일 인천재능대에서 '남북한 통일과 역할'을 주제로 정에서 탈북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盧東榮(의학75-81 모교 암병원장·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 소장)= 지난 2월 11일 모교 연건캠퍼스암연구소에서 제6회 국민건강나눔포럼 개최.

▲李榮漢(건축76-81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지속가능과학회장)= 지난 2월 11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우리의 지속가능사회와 디자인'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鄭天基(의학77-83 모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대한척추중추연구회장)= 지난 2월 15일 한양대에서 '척추중추 수술 후 척추복원'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宋在光(기악80입 이화여대 교수·바이올리니스트)= 지난 3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徐孝淑(회화81-85 서양화가)= 지난 3월 5~18일 서울 인사동 스페이스 이노에서 열세 번째 개인전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아시아 N 발행인·본보 논설위원)= 지난 3월 2~6일 쿠웨이트에서 열린 '알 아라비(Al-Arabi) 포럼'에서 연설하고, 무비라크 알사바 액션그룹홀딩스 부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임남희(기악95-99 피아니스트)= 지난 3월 2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제5장 Sentimental'을 주제로 피아

노 독주회 개최.

▲김정현(기악99-03 플루티스트)= 지난 3월 9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Melody and Memory'를 주제로 플루트 독주회 개최.

▲박상희(기악00-04 피아니스트)= 지난 3월 2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하이든,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崔延賢(기악02-06 바이올리니스트)= 지난 3월 5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삼가 명복을 빕니다■

▲辛基祚(전기공학43졸 前한국전력기술 사장)=2월 12일 별세(91세)
▲金天鈺(경제45-52 前국제이화공업 대표)=2월 12일 별세(95세)
▲曹奎鍾(조선항공46-50 인하대 명예교수)=2월 19일 별세(88세)
▲崔竹松(농화학48-52 前한풍산업 회장)=2월 9일 별세(86세)
▲朴權相(영문48-52 前KBS 사장)=2월 4일 별세(85세)
▲朴英傑(물리48-52 인하대 명예교수)=2월 22일 별세(85세)
▲朴鍾勳(치의학50-54 前동신치과의원장)=2월 11일 별세(86세)
▲韓浩東(섬유공학52-56 前한동염화 대표)=2월 19일 별세(80세)
▲許丙夏(상학58-62 우신시스템 회장)=2월 2일 별세(74세)
▲金靜子(국악60-64 모교 국악과 명예교수)=2월 12일 별세(72세)
▲徐丙厚(경제60-65 음악평론가)=2월 1일 별세(72세)
▲金英云(국악77졸 한양대 교수)=2월 4일 별세(60세)
▲李秉燮(AIP 38기 前한라공조 부사장)=2월 21일 별세(60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동문전화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No.1 노블레스 결혼정보, 엔노블에서 서울대학교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엔노블은 국내 최고 수준의 7개 명문대학교 총동창회, 22곳의 단체/기업과 협력하여 5천명의 회원에게 특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격과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실 수 있는 곳, 엔노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 노 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열풍으로 HOT 맛있게 구웠다



페퍼 스테이크! 오리지널! 매콤한 오징어!

해태에서 만든 구운양파 오리지널과 새로운 두가지 맛으로 더욱 더 강력해지고! 맛있어진 구운양파 시리즈!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국민의 행복 기업의 내일, KB가 함께 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 KB 국민은행
* KB 부동산신탁

* KB 국민카드
* KB 인베스트먼트

* KB 투자증권
* KB 신용정보

* KB 생명
* KB 데이터시스템

* KB 자산운용
* KB 저축은행

*** KB 금융그룹**

진료과

내과, 신경과, 한의과, 일반외과, 신장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진료

혈액투석, 중풍재활, 양·한방협진

경기도노인전문 시흥병원

심금의 손길로 전문화된 진료구현



홍정용 이사장) 서울대 75년 졸업, 양요환 병원장) 서울대 73년 졸업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85(구.광석동 353-9) T) 031)500-7100 F) 031)500-7200

신 간

■ 요한계시록 이야기

－ 吳牛星 지음



계명대 吳牛星(경영66-74) 명예교수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체로 쉽게 풀어낸 책. 요한계시록의 지구적, 단락별 해석 이전에 전체적 흐름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그 난해성으로 인해 독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요한계시록을 독자들이 가까이로 초대한다.

독자들은 저자를 따라 이야기의 오솔길을 걷다보면 멀리 있던 요한계시록의 세계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 독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세계를 만나게 되면 하늘이 닫혀져 있는 우리 시대를 살면서 갈등해 하는 성경적 영성의 숲속에 들어와 있음을 느낀다. (대한기독교서회刊·값11,000원)

■ 생각의 경계

－ 金聲浩 지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리과학과 金聲浩(수학교육73-80)교수가 새로운 생각이 처음 생겨나는 시작점을 '경계'로 보고, 생

각이 지식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열두 단계로 체계화해 설명했다.

빈칸, 매듭, 지식투영, 지식단면, 생각과 뇌, 질문, 지식결합, 지식공유, 지식의 진화, 창의성, 생각의 흐름 등 뇌의 기능을 실제 가르치는 카이스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나 통계 자료를 들어 실증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접하는 지식이 매우 한정적이며, 때로는 왜곡된 상태로 얻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한권의책刊·값15,000원)

■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 李先敏 지음



조선일보 李先敏(국사80-84 본보 논설위원)여론독자부장이 ‘대한민국’이라는 國號를 더욱 넓은 안

목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집필한 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한국 현대사 교양총서’ 중 한 권으로 마련된 이 책은 의외로 연구가 드문 우리나라 국호의 유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고 국호 관련 자료를 집대성해 사실과 논리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며 집필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되짚고 내려오는 서술 방식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국호가 지니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남남刊·값12,000원〉

■ 한국의 여기자

1920-1980

－ 金恩珠 지음



과거 여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당대에 가장 참단을 걷는 여성이었다. 기자직은 어떻게 수행했는가? 志士의 자세로 계몽활동을 하거나 문필가로 활약했다. 각 시대가 요구한 여기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전체 여성의 각성을 촉구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활발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연합뉴스 金恩珠(불문80-84)논설위원이 소개하는 일제 강점기, 전쟁, 산업화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활약한 여기자들의 이야기.

1920년 ‘매일신보’에 입사한 한국 최초 여기자 이각경에서 한국전쟁 당시 전장에서 군복을 입고 취재했던 ‘종군 여기자’ 장덕조까지 여기자 9명의 생애가

소개된다. 〈커뮤니케이션북스刊·값19,800원〉

■ 역사평설 병자호란①②

－ 韓明基 지음



명지대 사학과 韓明基(국사81-85)교수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서울신문’에 2년 동안 연재했던 ‘아픈 역사에서 배우다-병자호란 다시 읽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책.

병자호란의 참상을 反面教師 삼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병자호란의 안과 밖을 세세하게 살폈다.

저자는 병자호란을 살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한반도와 한민족의 운명에 외교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되짚어보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또 “병자호란은 ‘과거’가 아니다. 어쩌면 지금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일 수 있으며, 결코 ‘오래된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 반추해야 할 ‘G2시대의 비망록’이다”라고 역설한다. (푸른역사刊·값 각권 15,900원)

■ 누구나 인재다

－ 陸東仁 지음



뉴욕 특과원 시절 세계 핵심 인물들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헤드헌팅회사 커리어케어 陸東仁(서양사학81-87)대표가 유대인의 성공 비결과 창의교육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정리한 책.

특히 누구나 인재로 키우는 유대인 특유의 창의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날 한국의 경제와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 동력인 ‘창의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금융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으며, 창조산업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저자는 유대인들이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거둔 데는 그들만의 독특한 생각과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북스코프刊·값12,000원)

공연

■ 金玲美 플루트 독주회

－ 3월 30일 금호아트홀

플루티스트 金玲美(기악81-85 계명대 교수)동문이 3월 30일 오후 3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프랑스 발 모베 국립음악학교 연주자과정, 실내악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KBS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한 金동문은 이날 바흐의 소나타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 586-0945〉

■ 강보라 바이올린 독주회

－ 3월 30일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기악02-06)동문이 3월 3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미국 맨해튼 음대에서 석사학위, 럿거스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해 수원대, 서경대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이날 비발디, 슈만, 생상스, 바르토크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 586-0945〉

■ 韓亨實 피아노 독주회

－ 4월 1일 예술의 전당



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韓동문은 이날 바흐, 슈베르트, 베토벤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이든예술기획 6412-3053〉

피아니스트 韓亨實(기악77-81)동문(사진)이 4월 1일 오후 8시 서울 예술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결혼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고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정보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들을 관리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의 네트워크를 통한 클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4년 1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4. 1. 22~2. 5) · 일반 (2014. 1. 22~2. 5)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강영수 공대66
△김갑철 농대68 △김석년 미대52
△김아람 사회94 △김연배 상대64
△김영선 법대81 △김태형 AMP67
△류기락 농대81 △목하균 공대76
△문충실 行院82 △박용예 인문84
△박익희 사대05 △백만기 공대72
△서 구 AMP41 △서세원 문리69
△신희창 사회69 △여승동 공대75
△오병제 AMP21 △우성만 법대76
△유충걸 법대64 △이광찬 문리58
△이근식 법대65 △이기용 사대68
△이승덕 의대83 △이왕열 ACAD33
△이원표 AMP47 △이재성 법대69
△이재철 법대77 △임병준 공대87
△장종필 인문93 △정규병 의대65
△정휴병 SGS15 △조국희 약대79
△차봉진 약대75 △최복식 의대84
△한광석 공대76 △한호재 수의83

△홍탁균 사회92 △황용석 공대79

(일반) △강창수 공대48
△공성문 자연81 △곽영달 ACAD20
△구길우 AMP29 △권명규 문리55
△권순일 법대55 △김 암 사회81
△김광민 경영99 △김기동 법대75
△김기석 ABKI4 △김낙주 AFP12
△김명운 법대99 △김상환 법대84
△김성호 사대73 △김연길 AMP71
△김용범 經院71 △김은지 미대95
△김재호 사회86 △김정미 인문82
△김종현 공대72 △김중균 공대90
△김진용 사회88 △김창환 사대55
△김창희 의대96 △남승우 치대63
△박경일 의대92 △박복영 사회85
△박성호 AMP63 △박승기 保院82
△박정인 大院03 △박홍남 AMP13
△방수자 농대62 △배영수 인문72
△손종대 법대66 △송세빈 법대81
△송희상 ASP7 △안기웅 SGS28
△안익준 의대80 △안희동 AFP1

△유종호 문리53 △윤준영 사대72
△이경식 사대65 △이경하 법대64
△이규호 사회86 △이병전 AIP39
△이봉훈 농대82 △이수성 농대56
△이수영 법대64 △이승환 법대55
△이용진 인문05 △이우영 GLP24
△이웅순 치대57 △이종명 음대61
△이향숙 문리65 △임종혁 공대84
△임현수 법대07 △장선학 공대48
△장운근 경영90 △전주형 경영76
△정고순 ALP18 △정홍용 AIP47
△조규환 ABP20 △조세열 농대86
△차동엽 공대77 △채숙자 음대64
△최명선 AIC3 △최병완 상대57
△하원욱 농대73 △한상진 經院67
△한상진 사대56 △한효정 농대06
△허진란 사대83 △홍관의 상대55
△홍의종 AIC28

이 사

◆인문대 △도재문72 △류 진78

△박명식77 △오세중79 △정제문72
△정하연80 △최태영76
◆사회대 △구영수70 △김광재90
△문도선83 △박경재74 △박병룡80
△박성희75 △손광락74 △정일배91
△조영일77 △조현래73 △황기호77
◆자연대 △김남수73 △이장복68
△정찬균83 △한만현83
◆간호대 △이선자61 △홍정희86
◆경영대 △김영기73 △신동환78
△신용삼73 △신종열90 △안수현77
△이운호73 △진영근75
◆공대 △강명선40 △강상돈92
△강인권72 △고재홍75 △곽삼영51
△김대모61 △김명근53 △김명석74
△김명호74 △김병열72 △김병욱76
△김석주48 △김정섭77 △김종의59
△김종찬54 △김진원68 △민병선55
△박상호76 △박재기52 △박재범84
△박준창47 △박창순64 △박태훈78
△배무현72 △백승환71 △서우원61
△설영화65 △성백문83 △승효상71
△신성수79 △신훈철47 △안기원70
△우상룡72 △유승빈63 △윤병화58
△이명호53 △이문희59 △이석준83
△이성원58 △이세열78 △이승종70
△이재홍72 △이종호59 △이주범56
△이화흔74 △전상백53 △전효택67
△정조섭56 △조대승81 △진영준67
△최 연68 △홍성완62
◆농대 △권명규68 △김남현74
△김사일53 △김상국51 △김시흥69
△김영섭65 △김영진53 △김일봉68
△김정복59 △김진석69 △리신호74
△박래경51 △박형만75 △백창영69
△서병룡69 △석준호55 △오승관77
△윤동원79 △윤재수63 △윤종철83
△윤희진63 △이계홍56 △이대진65
△이병호82 △이영호65 △이운호68
△임형백89 △정수봉60 △채수근54
△최찬식56 △허정희72 △홍현주73
◆문리대 △고 건56 △권병두65
△김두희52 △김상복57 △김승국56
△김종진58 △김종하53 △남광성61
△박석흥63 △박영원69 △송규정63
△안승원68 △안취준61 △윤석현46
△이상무61 △이영준67 △이정남51
△임의신62 △정낙찬69 △정소성64
△조원규48 △차영구73 △차홍봉62
△최경락71 △하영준55 △호문익61
△홍영남60 △홍종용65 △황인광63
◆미대 △김연수76 △송복희74
△임훈순48 △전영철53 △조정송59
△천진희76
◆법대 △강 훈72 △강동세77
△강석훈82 △강재철77 △고광우53
△구본민77 △김귀동70 △김두희58
△김득환79 △김명종85 △김승욱60
△김의재56 △김정일60 △김종상65
△김진석84 △김창균57 △김태조54
△김현순54 △나경원82 △나정욱59
△노신영50 △명노승65 △민병국57

△민병환86 △박경보70 △박동섭60
△박상우75 △박성철75 △박영현69
△박요찬81 △박재경77 △박정규57
△박철근55 △배기열82 △서경석67
△서규영79 △서돈양56 △서정석65
△서정진58 △성지웅82 △송기영69
△신기남70 △신상규68 △신인식74
△심상철76 △심재갑52 △안종윤51
△안종택73 △유기준78 △유영상81
△이광진77 △이대순53 △이세창57
△이세훈55 △이원규75 △이인표54
△이종주85 △임인택58 △장병규53
△장세두59 △정규영57 △정덕장59
△정우모56 △정지형58 △정해주63
△주석영79 △최근선54 △최상원82
△최영도57 △최종길83 △한이봉83
△홍영용49 △황영구75 △황정열85
△황진구88 △황창섭53 △황희철77
◆사대 △곽후섭52 △김병무64
△김수형61 △김영삼73 △김진규58
△박영배65 △박종세55 △변병식86
△송광섭77 △송동수67 △신동철59
△이광범92 △이기영68 △임항순60
△정상윤74 △정의표70 △정준섭61
△최기숙65 △홍철근70 △황승기69
◆상대 △고일성54 △권혁승53
△기병태53 △김영섭66 △김영준71
△김완기46 △김원길61 △김정우65
△김종국55 △김하두64 △남상덕69
△문운용60 △문철한56 △민형동71
△박영조61 △백창기61 △서주성44
△선종승71 △신평재57 △안태호45
△우두현61 △우완식57 △유석홍61
△유영일53 △이구수57 △이상득57
△이일훈55 △이정복54 △이태형59
△이태환58 △이항철54 △장명섭49
△전종환51 △정병호53 △조영삼71
△조원래57 △최부완54
◆수의대 △김본원63 △김택수55
△박종명61 △박호인71 △백오섭58
△장치훈70
◆약대 △강 서58 △권경근56
△김광순59 △김영택58 △김우영67
△김원목78 △김진우54 △김진훈71
△노동출78 △박종길71 △박진우07
△신화범50 △안병욱68 △윤도중58
△이순석61 △정연진69 △조영준69
△차기현59 △홍기정59
◆음대 △강덕원69 △심선화72
△이창수67 △장재홍57 △정순용82
◆의대 △김병진66 △김성덕65
△김승욱50 △김재윤79 △김종숙77
△김찬영46 △동영승49 △박훈영71
△선덕영49 △송희승53 △심영보55
△양성범75 △양승열51 △오경근67
△유왕성75 △유태연54 △윤광선68
△이종원76 △장윤석49 △주영수84
△지심봉55 △최경진68 △최인호70
△최훈동72 △한종수71 △함의근52
△홍영식61 △황대용80
◆치대 △강효식57 △구본석78
△구창서58 △김경남72 △김경애57

interbiz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 인터비즈시스템

스물다섯 인터비즈 뜨거운 젊음으로 도약하다!

SINCE 1989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잇는 인재관리전문기업 인터비즈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 인터비즈시스템
HR 아웃소싱 서비스 | 근로자 파견 서비스 | 헤드헌팅 서비스 | 채용대행 서비스 www.inter-biz.co.kr

(주)인터비즈시스템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6층(여의도동) 본사(관리) 02-799-7900 (영업)02-799-7979

△김규진64 △김성웅58 △김정욱83
△김재중68 △남용욱51 △류홍렬77
△박연천72 △박행운56 △부삼환58
△석창인81 △성훈경59 △신덕재68
△신일규65 △양희일56 △유재석70
△윤임도72 △이봉호86 △이석근90
△이시우59 △이용오56 △이종오76
△이한무65 △장동재79 △정건용52
△정광현58 △정상일91 △정용호65
△허준구66

◆대학원 △김문환79 △김석웅81
△신호수85 △임유택87 △정병희52
◆경대원 △전도진70

◆보대원 △박순영63 △박종안72
△신석우65 △이규한63 △최지원97

◆사대원 △김창식67 △이원성67
◆행대원 △김상영65 △남상우73
△배문환63 △윤일규69 △이시경79
△이영태72 △최순현73

◆현대원 △석영철71 △이만의73

◆AMP △강봉희36 △김정환15
△김해삼51 △김홍래36 △손창수41
△송문호38 △신성우32 △신용문68
△우영태40 △유한섭23 △이한규23
△이호수35 △전현찬44 △정석재61
△조문규51 △조승현66 △천용택31
△최호경28

◆AIP △강명영20 △강민우5
△고희수25 △김성환43 △심영복38
△오태호33 △위재곤27 △이대만24
△이창규11 △정봉성29 △황이남22

◆ACAD △강남주56 △권태석60
△김연수16 △김정록73 △김종웅39
△방동식27 △전 홍48 △전영배5
△정동우6 △정송학54 △최종욱20

◆ABP △이삼희20 △전안희20

◆SGS △김봉규25 △김제남19
△이창근1

◆HPM △권오성23 △김복희1
△김영환21 △김중곤16 △엄신홍14
△이공순5 △이상완11 △조정식23
△최창욱14

◆AMPP △강철환10 △이은세9

◆AIC △김영식29 △김현식2

◆AFB △김규태1 △성태섭1

◆AMPFRI △이춘희9 △최창혁4

◆ACPM △김기식6 △김범용6
△이근성1 △정원배3 △탁봉열3

◆FIP △황귀봉1

◆GLP △권덕수15 △김용태17
△김원철15 △노윤호12 △박세연20
△신용식17 △유영덕7 △윤여표11
△이용문17 △최진철18

◆ALP △김기식5

◆SPARC △박노현15 △정삼진18
△홍기남5 △황용규15

△손신명78 △오문석81 △윤선기83
△윤현종81 △이수전91 △이현태96
△임일섭83 △장진우88 △장희경07
△정용준73 △정재호73 △조동환82
△한직환82

◆자연대 △김신우99 △김용규06
△박세훈00 △이지혜11 △임태순79
△정 신79 △정동근84 △조완제84
△조은비07 △최철호83 △허은기84

◆간호대 △김시정95 △박문화59
△오두남89 △이상영99 △이인옥74
△이창우55 △장예환58 △정현명88
△채영순70 △최영희65

◆경영대 △고희라99 △김진호81
△박두원90 △박세환85 △송조찬78
△신윤철70 △양진호89 △이재욱88
△이준구91 △장진우06 △조표훈95
△최종욱89 △허일섭73

◆공대 △강상우03 △강신구53
△강우영88 △강춘식55 △경창성65
△고항규68 △구민석07 △구중서66
△권상익91 △권혁선72 △김남영69
△김병준58 △김상용54 △김성민03
△김성우59 △김신태63 △김영수81
△김영진53 △김영휘52 △김용태53
△김원태56 △김윤제62 △김재경97
△김재설57 △김정우56 △김정철55
△김종환61 △김천환65 △김철구65
△김철호85 △김태형94 △김현기77
△김형모54 △김홍만89 △김홍수75
△남원창99 △노동근95 △노정의46
△노환영56 △문갑석66 △문몽민57
△박경주08 △박승균63 △박원준49
△박원호85 △박의남49 △박종규88
△박지빈93 △박진모07 △박천경52
△반치범93 △백승석49 △백학기52
△서영길59 △서의석49 △서장렬83
△설재훈92 △송주인51 △신대승55
△신현욱92 △심창생60 △심풍수76
△안병휘59 △안준영52 △양종화70
△엄태석65 △여준구06 △여태승82
△원준희49 △유병동94 △유인봉55
△육내승51 △윤남진53 △윤상건73
△윤상철51 △윤여경48 △이 석47
△이갑표48 △이경신82 △이경화02
△이국노80 △이동린56 △이동욱82
△이범철65 △이봉희73 △이상현71
△이석규57 △이성실51 △이수남69
△이수영03 △이신옥52 △이영윤70
△이예민46 △이재남57 △이재성46
△이재순74 △이재희03 △이주영07
△이준구97 △이진기46 △이태현95
△이화용70 △이효준08 △이희근55
△임경춘52 △임정명58 △임태원47
△장갑희75 △장문성95 △장옥룡52
△장재호96 △장학순46 △전병규01
△전복현58 △전연옥57 △전유정08
△정광섭74 △정봉주82 △정원영48
△정의진08 △정재관57 △정정운62
△정진삼61 △정형근71 △조남일70
△조사홍56 △조용훈78 △조춘식70
△주기만64 △최갑주06 △최고봉03
△최광선84 △최성수57 △최종식82
△하상모98 △하태관06 △한광석66
△한은근59 △한충수98 △한현선97
△허 홍58 △현익환82 △호영철58
△홍남중88 △황보일83 △황인호56

◆농대 △강신표55 △강인석81
△고덕구75 △금방용85 △김규식68
△김규식72 △김대경51 △김영달56
△김재홍57 △김정기56 △김종언91

△김준평48 △김진곤56 △김진목54
△김찬조49 △김현용92 △김호택58
△남구한60 △노진표55 △노홍섭53
△류남렬50 △박남중54 △박상홍55
△박승걸53 △박종민87 △박치석63
△박홍준83 △백상덕59 △백주은75
△설권석54 △송기언55 △송기철74
△송종익55 △신동수55 △신종복54
△심재욱53 △심재철57 △양두석51
△양철호89 △염영현63 △염태영53
△오근배56 △오세승53 △오학영56
△우병국75 △우상호59 △유근영54
△유기원53 △유기형53 △유석형58
△유석환65 △유성곤63 △유세현79
△윤상렬57 △이계은55 △이광선57
△이덕립58 △이병하55 △이상호52
△이성수67 △이영문52 △이원식53
△이재구58 △이종구53 △이지형64
△이진호57 △이진희81 △이태영54
△임무상59 △임정수78 △장낙연55
△장정수64 △정구현53 △정기택66
△정돈철68 △정무남62 △정민현55
△정연택83 △정인무53 △정종수58
△정진국68 △차영준51 △천정하54
△최금석76 △최병원77 △최송웅60
△최원개50 △한상복54 △현호연53
△홍승진79 △황인엽74

◆문리대 △강학철55 △강희조55
△고상빈50 △공대식50 △권오광59
△권대승55 △김경환65 △김규완60
△김동원70 △김수중68 △김순섭57

△김순태56 △김옥민51 △김용권50
△김용태65 △김중하57 △김태욱58
△김학중54 △김흥수57 △나학진48
△맹제영55 △문 용49 △박관운56
△박용오70 △박재만54 △박진하48
△박희봉48 △백병기60 △변창명56
△서민석53 △서병철59 △서일환55
△서정태55 △송병화51 △송연달67
△송인찬59 △심기철61 △염태호59
△우성식71 △유진당54 △윤재문63
△이 순55 △이달형54 △이대일56
△이돈형58 △이병근59 △이승만62
△이정숙53 △이정주55 △이종무58
△이종인54 △이평우48 △이해정48
△임동규55 △장갑석53 △장종하59
△장진수65 △장희순50 △전대식53
△전석홍54 △정 탁59 △정국록71
△정삼윤64 △정지식61 △정춘영50
△정태식56 △정태훈53 △정한택46
△조계찬47 △조영길58 △조용주67
△주석순48 △차기백46 △최 홍66
△최성규60 △하인경66 △한문수44
△하두표60 △현영욱67 △홍혜숙68
△황연익57 △황하복56

◆미대 △강봉구04 △권순형49
△김경수56 △김민정01 △김선미88
△김성희82 △김익수58 △박한진57
△손원잡65 △신용태59 △윤선이87
△윤형실54 △이경희75 △이성경08
△이은심78 △이주현98 △장상의59
△정지환60 △최연희68 △최진주81

△홍순무54
◆법대 △강기철48 △강병연57
△강영균84 △강인현56 △강진성55
△강태형57 △고명운54 △고재천60
△구자순53 △김 옥86 △김광주62
△김국진60 △김기수47 △김기인58
△김남진51 △김명종61 △김명진74
△김병문62 △김복지48 △김상태48
△김세중82 △김수홍97 △김순구58
△김유택50 △김일덕56 △김정일97
△김정중91 △김창국56 △김창근51
△김철용54 △김호현61 △김희수80
△김희용60 △노영구51 △류재신48
△박승준80 △박원철67 △박익환81
△박인환51 △박종철55 △박진우92
△박창석62 △방영민78 △백대현50
△백세웅64 △서영덕57 △서원태67
△손석주55 △신광렬84 △신상갑53
△신성오60 △신희택71 △심심명60
△안병익88 △안재식57 △안해연07
△양승국77 △염동희49 △오종권65
△오치룡65 △우병우84 △윤상목52
△윤재승81 △윤정경55 △이교선55
△이동렬68 △이상철52 △이선우74
△이승한55 △이승환55 △이승훈80
△이제재47 △이종신63 △이종환59
△임성근82 △임승언56 △임창원64
△임태유59 △장 호67 △장명관51
△장백규78 △장상재55 △장재윤82
△전태환84 △정광욱06 △정세욱56
△정재일52 △정종국90 △조병선57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0260호(2014.01.20~2015.01.19)

남들이 2%에 머물 때

삼성증권은 98%의 큰 세상을 봅니다

삼성증권과 함께
최적의 해외투자 포트폴리오로
더 큰 기회에 투자하십시오

대한민국 시가총액은 전세계 증시의 약 2%(13년 12월 기준)
글로벌로 시야를 넓히면 98%의 더 큰 세상이 보입니다
삼성증권이 약속 드리는 글로벌 노하우와 함께
더 큰 투자의 기회를 만나십시오

삼성증권 글로벌 투자 약속 ❶
최적의 해외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해드리는
글로벌 BEST 포트폴리오 (주식/ETF/펀드)

삼성증권 글로벌 투자 약속 ❷
엄선한 추천상품에 책임있는 A/S까지
추천상품 관리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 또는 Family Center 1588-2323으로 문의하세요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create with you

삼성증권 SAMSUNG

일 반

◆인문대 △구자현77 △김학균89
△김한국79 △문선호87 △박영식79
△박진우93 △변성수84 △서노원81
△서선령87 △송기국76 △안정민03
△이준호91 △장윤선92 △최영준94
◆사회대 △권철원03 △김강산01
△김규수87 △김민관97 △김영만84
△김영생81 △김용대73 △김준한71
△김철기72 △김흥수85 △김희철81
△문준석92 △박병삼87 △박용현90
△박재진89 △박정호83 △배세환96
△변동희73 △서병일87 △손건수83

△조봉균58 △조성일61 △진동수67
△최귀인56 △최선경05 △한상태56
△한승철82 △한용기62 △홍성인58
△황성재72 △황성진66
◆사대 △강경택68 △강신홍53
△강양희57 △고병철61 △김 탁52
△김갑년53 △김경자63 △김광운73
△김광준63 △김길순61 △김동주86
△김봉호68 △김성진53 △김성태54
△김영준73 △김용복57 △김윤혜10
△김인숙58 △김주환64 △김준환61
△김장경61 △나고찬52 △남규옥43
△류은선87 △박감순52 △박노학50
△박성민70 △박순애50 △박승환53
△박양수56 △박완규80 △박은실02
△박인식48 △박장순52 △박종남57
△박종곤60 △박종대71 △박현수76
△백영묘98 △변영희66 △변재용59
△서윤수48 △송재식49 △신명자56
△안광화63 △안종환55 △오진경38
△우명길68 △우상혁56 △유기동65
△유기웅59 △유상주58 △유성렬64
△유오진58 △유희연59 △윤석오64
△윤성원57 △윤종상52 △윤희숙57
△이강범57 △이광열56 △이남규58
△이대규57 △이득우74 △이만형62
△이석주56 △이성규57 △이성진53
△이성현56 △이세현55 △이순권61
△이영호50 △이용우55 △이우진53
△이은희92 △이재근43 △이종명54
△이재규66 △이충현08 △이호상57

△이흥중54 △이희명49 △임찬희78
△장병덕53 △장제흥55 △전래수52
△전종대75 △정동춘80 △정두현60
△정문환56 △정상호67 △정영호52
△정우상53 △정운근71 △정정현06
△조성호75 △조주현04 △조철원55
△최계숙52 △최병록49 △최정숙44
△하병권53 △하영준56 △홍성수50
△홍운표54 △홍인기54 △황기탁49
△황세열49 △황적륜54
◆상대 △강경만54 △강경수55
△강용운61 △강좌희55 △강태석51
△곽 규51 △구의일61 △김경원58
△김동원69 △김병기54 △김상경61
△김상남66 △김상은53 △김상희69
△김선길45 △김연조56 △김유일53
△김윤기59 △김인기52 △김장현54
△김재진54 △김정웅60 △김정환60
△김진호50 △김진화58 △문무상54
△문영지55 △박경석53 △박대명55
△박복양44 △박봉흠68 △박진화55
△박창규56 △배기수61 △백기덕58
△서규상53 △서돈윤58 △서재진60
△성백규52 △손홍규51 △손흥근54
△심남진49 △안영목57 △안희중59
△오상봉70 △오우성66 △오정현54
△우상섭53 △유명희57 △유방연61
△유병규54 △유병무64 △유병인58
△육무수53 △윤가현52 △윤길현52
△윤영원55 △이기용56 △이봉길58
△이승균55 △이영상51 △이종렬49

△이종수64 △이창숙57 △이창준53
△이희준49 △인수환54 △임영식57
△임정일62 △임창무53 △임한석59
△장동수58 △정연덕50 △제정오57
△조 원56 △조동후51 △조성진55
△진영수63 △최동호65 △최인학59
△최처락54 △한영국50 △한희영49
△허 길52 △허 석59 △현임중56
△홍순대55
◆생활대 △김명경83 △김성희69
△김세리05 △김정주56 △박문학60
△방효석56 △서병숙55 △염윤경78
△이정자77 △이창배51 △이화숙57
△전상숙81 △정광호57
◆수의대 △김선일63 △김세훈97
△김정근50 △김종면52 △김진영60
△노병의61 △박내정63 △박만택52
△박신규61 △박양기56 △박현기58
△박현기66 △신현덕80 △여중원65
△우영제64 △윤석정61 △이완준62
△이형우51 △전형우89 △정윤섭55
△정자영84 △정태규56 △조종호49
△조형기54 △최영식61 △홍두표55
△황병주57 △황현태65
◆약대 △강내영82 △강삼식65
△강순철59 △국진섭57 △김영호57
△김정숙69 △김정화57 △김진형88
△김태윤55 △김학균51 △김홍집57
△노일협45 △문창기52 △박문기47
△송문정90 △송승희99 △유도봉66
△윤형중57 △이갑열53 △이계준64

△이문형47 △이재현45 △이종화55
△정상철52 △정순간58 △정은희82
△조지웅53 △지상구54 △천길순52
△최현식64 △허명관69
◆음대 △김영숙85 △김종필81
△방통일72 △서수민97 △송영목80
△신혜주75 △안형일53 △유화자59
△윤제상78 △이기원49 △이영자56
△이종명61 △이한돈65 △차세정95
△하내인58 △한애화84 △한태원73
△현병화48 △홍승현81 △황영기82
◆의대 △강진화80 △구본희54
△김동윤76 △김성환03 △김윤식69
△김찬욱47 △김현경99 △김희정07
△도병욱83 △박신근61 △박재홍80
△박한철53 △변창세69 △송인배73
△신명희56 △신성우47 △심성은91
△송상길58 △유 준41 △이 희68
△이계희77 △이덕수55 △이승원97
△이언복52 △이학중52 △임형석81
△장선택46 △장수진06 △장운삼45
△전예근46 △정태산53 △정해철76
△조성근47 △조승현45 △최수용07
△황호섭58
◆치대 △강호경53 △구연우54
△김두현58 △김명국54 △김신규87
△김연만55 △김정균59 △김정자59
△김창희62 △김태일75 △박기호57
△손호현70 △안진수05 △여인호79
△염경철61 △오기환53 △윤경호58
△이경우71 △이광건73 △이병윤53
△이수백70 △이정식55 △이한규92
△장기산57 △전영섭60 △전훈식59
△조상태83 △조영선53 △조일제77
△조한준53 △차만희57 △최세원77
△최승훈81 △홍순룡58
◆대학원 △권경필96 △김동선56
△김상호79 △김석기03 △김인배68
△김재호77 △김종수79 △송일민85
△양기주95 △윤민재90 △이동필81
△이정후11 △최운정04
◆경대원 △박정남69 △신길수68
△이영희67 △최갑석72
◆MBA △박정우10 △최홍석11
◆교대원 △변정숙64 △정월용73
△황현익65
◆보대원 △김종만62 △김좌상60
△김주희72 △박전봉72 △반정목60
△송경섭69 △오병근88 △윤지선04
△이민희74 △이한구69 △함기선67
◆사대원 △김준열63
◆신대원 △김기도72 △이준우73
◆행대원 △고충삼63 △김수연11
△김의승90 △김정식84 △박재석71
△설근태88 △성낙승69 △염준호12
△유셋별07 △이기섭77 △이주석84
△정성태11 △최효섭12
◆환대원 △윤종식89 △이동관03
△채승기81 △최 준94 △허 완74
◆AMP △고용석39 △곽덕근54
△김광수45 △김병두24 △김성환25
△김영광65 △김용수15 △김우전7
△김응열25 △노선호24 △문만수32
△박병익20 △박영근17 △박인종25
△백문현25 △서재희25 △안두수73
△안운수74 △안치한31 △유재우47
△유준웅31 △이성길34 △이시용31
△이영태35 △이원길26 △임창섭14
△장활수13 △정연동48 △정일기35
△조남용68 △조내벽31 △진홍균9
△최경희38 △최대업31 △최영석11

△최영철20 △최인호12 △최종명14
◆AIP △고형석21 △공소열13
△김인교30 △김일수14 △박영옥38
△박인서12 △이건구24 △이봉훈36
△이재서11 △이현희15 △최용의43
◆ACAD △김상렬58 △김승영43
△남종우30 △노정기36 △류근환13
△박기철39 △박만윤40 △박준구47
△서인필75 △성기태59 △송원순72
△오필기2 △윤용인21 △윤춘근13
△이경영7 △이교용40 △진인권28
△최병인5 △최창관66
◆ABP △박하용39 △배덕재41
△손기석39 △양병기30 △이무성38
△이수남39 △이종우41 △이항숙42
◆SGS △김용환16 △김호영2
△안영대22 △장기숙28 △전우대2
△정해순3
◆APC △손일근3 △안무경4
△이우진4 △최상현18
◆HPM △권차남5 △김 웅6
△김일용6 △배종섭27 △서관석2
△심춘보26 △안영미28 △이규호30
△이신락23 △이영관1 △이은정14
△이정현9 △이주국2 △정해영28
△주인채30 △하병철28 △하우형29
◆AMPP △남석희5 △박세길14
△이영석5 △장필순10 △전제원12
◆AIC △김인기2 △문성익35
△신원식32 △윤영기2
◆AFB △강춘호13 △나영식13
△류상기13 △민선기7 △박희성12
△유호재13 △이진수13 △임영식12
◆AMPFRI △강림구30 △김상철4
△김인호7 △김정주2 △김진수7
△배명섭9 △양동수6 △이종무11
△조형찬11 △전병기19 △한권우29
◆ACMP △강희양10 △김락중6
△김수용7 △이강석10 △이동찬8
△조주태10
◆FIP △이신호7
◆GLP △김은호25 △김태환27
△노길환26 △노성남27 △박옥만18
△배인숙27 △이상복25 △이종욱26
△이준형11
◆ALP △곽상욱12 △길기봉2
△김 오16 △김해연15 △남기현15
△임영철5 △장덕근16 △주경섭16
△주정환13
◆SPARC △김유경2 △최광종6
◆AFP △김동춘5 △송효순7
△최동열5
◆ASP △김희창24 △유태완16
△이영호25
◆IFP △김대하1 △심명석3
△이성건2 △조진영4 △최귀학3
◆BCP △강예규7 △김영순10
△정영권11
◆ABKI △김동성4 △김진목1
△남병희4 △문준기4 △안은정4
△이종용4 △임해송4 △장미자4
△정운영4 △조성제4



도시를 밝히는 노란 발자국

발에 착 감기니까 더 편안해진

2014 G1



옐로우라이트



버닝오렌지



민트블라썸



밋나잇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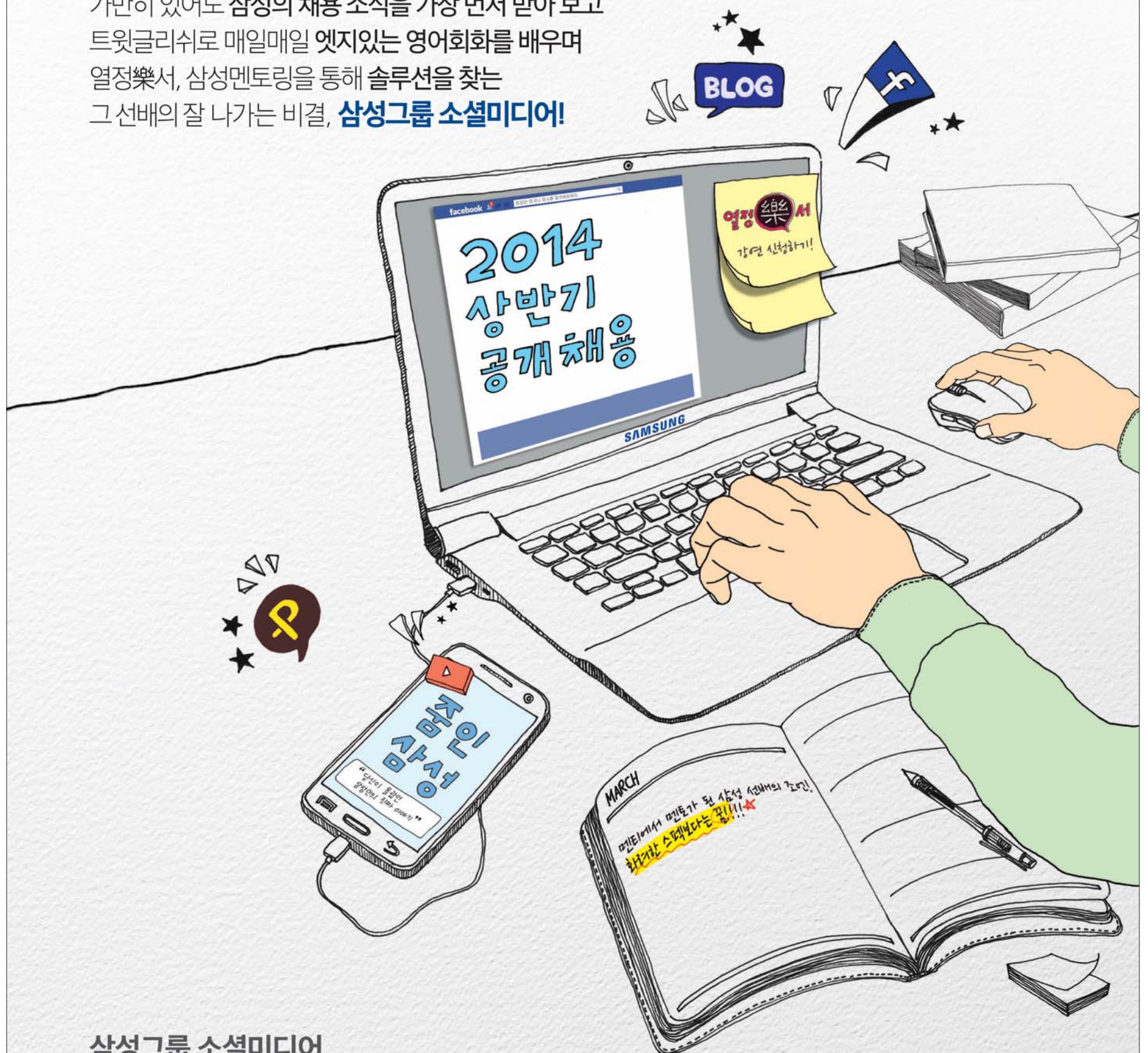


2014년 1월	
연 회 비	61,930,000
평생회비	38,300,000
입 회 비	520,000
계	100,750,000
2014년 누계	100,750,000

SAMSUNG

요즘 잘 나가는 저 선배 도대체 비결이 뭐야?

가만히 있어도 삼성의 채용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 보고
트윗글리쉬로 매일매일 엿지있는 영어회화를 배우며
열정樂서, 삼성멘토링을 통해 솔루션을 찾는
그 선배의 잘 나가는 비결,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삼성블로그

blog.samsung.com

삼성트위터

www.twitter.com/samsung

삼성페이스북

www.facebook.com/samsung

삼성 카카오프러스친구

카카오프러스친구>검색>삼성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 SGI서울보증이 함께 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SGI서울보증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대한민국 대표 보증기관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고객의 성공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Your Best Credit Partner
SGI서울보증



Global 대표사무소

• 뉴욕 • 하노이
• 북경 • 중동

Global신용등급
S&P A Fitch AA⁺

세계 4위
보증기관
(ICISA 회원사 기준)



취업할 때 필요한
신원 보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모기지 보증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금반환 보증
전월세자금대출 보증



자동차를 구입할 때
오토론 보증



납품/공사 계약 체결 때
이행 보증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Counter Guarantee
(구상보증)